

동네 사람들

주민이 모임 활동을 직접 공모·제안하는 방식으로
주민모임의 주도적 활동과 관계를 도운 사회사업

권민지

푸른복지

차례

발간사	1
머리말	3
저자소개	5

준비

사업 방향 설정하기	8
선행연구	11
동네 사람들 홍보	19

진행

사업설명회	24
모임 ① 꽃보다 할매	31
모임 ② 소드래	50
모임 ③ 무궁화회	57
모임 ④ 미술동아리 네잎클로버	69
모임 ⑤ 정가든	75
모임 ⑥ 요리동아리 삼시세끼	90
모임 ⑦ 천연과 친해져	99
모임 ⑧ 꿈 자라다	106
모임 ⑨ 탁구친구동아리	111
모임 ⑩ 방화마을 합창단	116
모임 ⑪ 꽃구름 탁구동아리	120
동네 사람들 공유모임	123

마무리

동네 사람들 내년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144
배움 소망 감사	146
동네 사람들 관계망 변화	149
인터뷰 분석	159
응원글	164
맺음말	166



발간사

김상진 관장

1994년 6월 28일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이 첫발을 디딘 그 여름날은 지금처럼 덥지는 않았습니다. 주민을 위해 다양한 사회복지를 실천하겠다는 열정만큼은 지금처럼 뜨거웠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이 어느덧 25살의 청년이 되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인디언 격언처럼 25년 동안 우리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은 마을에서 주민들과 함께 동고동락(同苦同樂)했습니다. 한편, 25년을 주민들과 함께 숨 쉬며 살아오던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은 급변하는 사회복지 환경 속에서 지역사회복지관으로의 정체성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015년부터 복지관이 외부환경변화에 어떻게 발맞춰 복지관을 운영하고 사회복지 실천을 해야 할지 끊임없이 생각했습니다. 모든 직원이 세웠던 복지관의 미션과 비전을 새롭게 정비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했습니다.

2018년에 동 단위 조직개편을 하고 마을로 나가는 실천을 시작했습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와 마을로 나가 인사하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감사하며 뜻있게 사회사업 실천을 꿈꿨습니다. 마을이 사람 냄새가 나고 생동하기를 바랍니다. 동 중심 개편이 처음이라 좌충우돌도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열심히 마을 곳곳을 다니며 실천했습니다.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이 지역사회에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며 실천할 때에 지금껏 그랬듯이 주민들은 저희의 손을 잡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기관 안에서의 사업도 다소 변화를 주었습니다. 기존의 방식을 유지하면서도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였는데 그중의 하나가 「동네 사람들」입니다. 기존의 주민모임은 사회복지사가 배정되어 주민들과 함께 모임을 진행하는 형식이었으나 이제는 주민들이 스스로 모임을 조직하고 운영하는 형식으로 주도성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은 쉽지 않았으나 많은 분이 기관의 의지에 동의하면서 참여해주셔서 아주 의미 있는 실천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애써준 권민지 사회복지사의 수고도 잊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머리말

한국사회의 삶은 점차 나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더 나은 삶을 꿈꾸는 것이 허락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사회일수록 신뢰하기 어렵고 사람들은 점차 고립되고 외로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이 살아가갈 수 있는 기본바탕이 되는 주체성과 관계를 돕는 예방적 복지사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고 함께 잘살자는 논의를 할 수 있는 구조인 마을공동체에 주목하고자 했습니다.

그동안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많은 주민모임이 마을에서 다양한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런 활동들이 지역사회조사 내용에서도 마을과 주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도 확인했습니다. 4년 동안 진행되었던 마을지향사업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주민 주도적 활동을 통한 사업과 복지관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깊어져 갔습니다. 직원들과 수차례 이야기를 나누며 고민을 함께 해결해나갔습니다. 그 결과 2004년부터 진행되었던 장애인기능특화를 종료하고 동 중심으로 조직이 개편되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기존에 잘해왔던 방식을 강화할 신규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주민자치 역량을 개발하고 지속 가능한 모임으로 성장하여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고자 했습니다. 이에 방화2동 주민이 모임 활동에 대해 직접 공모 제안하는 방식으로 주민모임의 주도적 활동과 관계를 돕는 동네 사람들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한 해 동네 사람들 사업에 관해 궁리하고, 나름으로 열심히 만난 내용을 토대로 실천기록을 남겼습니다. 부족함이 있더라도 실천에 의미

를 두고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모임 공모사업과 다양한 주민모임의 모습을 궁금해하는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학과 대학생, 뜻 있게 실천하고자 하는 모두에게 도움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회사업가 권민지

저자소개



저는 복사꽃 향기가 가득한 경기도 부천시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태어나서 이사를 한 번도 가본 적 없이 한동네에서 쭉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골목을 볼 때마다 어렸을 적 친구들과 함께한 추억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주변에 놀이터가 없어서 골목이 저에게는 놀이터였습니다.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골목 여기저기에서 친구들과 함께 공기놀이, 고무줄, 술래잡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땅따먹기 등 많은 놀이를 하며 보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동네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듣거나 노는 모습을 보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주택들이 많았던 동네는 빌라가 많이 생겼고, 어렸을 적 놀이터가 되어 주었던 골목길은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제가 자란 만큼 주변 환경도 많이 변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처럼 믿음과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보여주셨던 부모님 덕분에 그늘 없이 밝고 건강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저의 든든한 안식처가 되어주는 부모님 덕분에 즐겁게 생활할 수 있었고 좋은 추억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도 사귀게 되면서 관계의 중요성과 소중함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진로를 고민하던 시기에 막연하게 윤리 선생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성적이 되지 않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고등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의 권유로 사회복지학과에 원서를 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디서 일하는지, 무엇을 배우는 곳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입학하자마자 부지런히 공부하고, 봉사활동과 직장체험을 하면서 사회복지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앞으로 나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했던 많은 경험과 선배사회복지사들 덕분에 지금 제가 사회사업을 실천하는 바탕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10년 10월 사회복지사로 현장에 첫발을 내디딘 지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2019년이 되었습니다. 쉬지 않고 꾸준히 일했던 것 같습니다. 일하면서 속상하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기쁘고 행복한 추억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이웃과 인정이 넘치고 마을에 관계를 남길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 두루 돌아다니며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인사하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감사하며 사회사업을 실천하고 싶습니다.

준비

사업 방향 설정하기

올해 극강사업으로 이웃동아리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계속 고민되는 점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업에서 파생되는 모임들은 이웃동아리가 아닌가? 그럼 내가 하는 사업과 다른 사업의 차이점은 무엇이지?' 등등 방향성과 사업에 대해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은희 부장님과 김미경 과장님, 양원석 선생님과 만나 함께 궁리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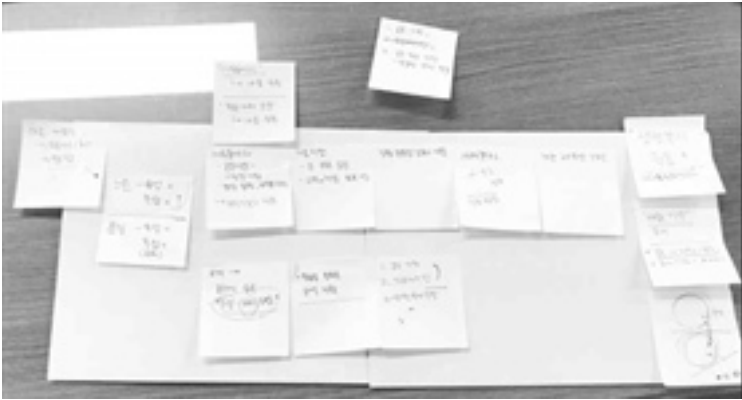
올해 제가 맡은 업무량을 살피고, 기관에서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부분을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세 가지 정도로 정리되었습니다.

1. 동네이슈 해결을 주제로 하는 주민모임공모사업
2. 인큐베이팅(기존 주민모임의 독립, 자체로 운영할 수 있는 강한 연결의 조직 구성)
3. 공모사업(기존 주민모임) 최소+ 특정 주제 활동

2번 인큐베이팅 사업은 제 처지와 역량, 기관의 미션과 비전, 방향성을 살펴봤을 때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은 1번과 3번 중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을 궁리하기로 했습니다. 좀 더 많은 주민을 만나고 알 기회, 주민과 주민 간의 관계가 생길 기회, 복지관의 사업이 아닌 주민들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활동들이 생동 될 방법,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더불어 사는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구실을 많이 만들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처지와 역량을 고려했을 때 1번이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공모사업이 주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예산 지원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고려할 점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괜히 이 사업 때문에 주민들 간의 불편한 오해나 분란이 생기진 않을까 걱정되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선행연구의 중요성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컨설팅 내용

사업을 진행하면서 동네 이슈라는 말은 주민들 관점에서 어려우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바꿔 홍보할 예정입니다. 꾸준히 지역사회 두루 다니며 주민들께 제안하고 설명하려고 합니다. 사업설명회도 진행합니다. 처음 진행되는 사업이기에 우여곡절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데도 도전한다는 정신으로 최대한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함께 궁리 해주시고 생각 정리하는 데 도움 주신 김은희 부장님, 김미경 과장님, 양원석 선생님 고맙습니다.

김은희 부장

동아리 활동으로 이웃 간 관계를 거들고자 하였습니다. 기획 회의를 하며 담당자로서 기관의 다른 사업들과 차별성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생각의 폭이 넓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운영해야 하는 여러 가지 우려와 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먼저 경험한 기관의 사례도 공부하다 보면 대안도 생기고, 재미나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올 한 해 권민지 주임의 실천을 응원합니다!!

김미경 과장

2019년도 사업 선정에 어려움이 많았지요? 기관운영 고려하여 다른 사업까지 흔쾌히 맡아주어 고마워요. 권민지 주임님은 통찰력이 있고 사업 추진력이 있어 올해도 뭐든 잘할 겁니다. 특히 그동안 잘 이뤄온 주민과의 관계와 재능 있는 방화동 주민을 많이 알고 있으니 잘 이뤄갈 것이라 믿어요. 여러 걱정이 있으나 그때그때 함께 방법을 찾으며 나아가길 바라요. 재미있겠어요.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신미영 사회복지사

이웃동아리를 구실로 주민들의 관계와 활동을 어떻게 하면 잘 도울 수 있는지 고민하던 주임님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주임님의 처지와 역량을 생각하며 지혜롭게 사업 공리하는 모습 보고 배웁니다. 주민들께 공모사업 제안하며 설명해드린다면 ^^ 걱정 없이 잘 진행될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주임님!! 동네 이슈공모사업 응원합니다.

양원석 소장

기관 전반의 사업을 살피고, 그 안에서 자리매김을 고민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도전한다는 마음이 우리가 추구하는 마음이에요.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는 담담히 수용하면 된다 여겨요. 우여곡절도 함께 대처해요. 고맙습니다. ^^

선행연구

그동안 복지관에서는 다양한 주민모임들과 활동했던 경험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 안에서 주민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는 과정으로 함께 활동했고, 예산사용도 복지관 예산과 주민들이 직접 걷은 회비로 집행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수행하면서 지역사회 복지관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마을지향사업을 통해 직원들의 관점이 변화되었습니다. 자문과 교육을 통해 주민주도의 복지사업이 전개될 방법을 지속해서 고민했습니다. 2004년부터 진행되었던 장애인기능특화복지관 종료와 동 중심 조직개편을 계기로 기존 모임들을 어떻게 도울지 고민했습니다. 기관의 미션과 비전, 방향성에 맞게 사업을 재구성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동 중심으로 일한다는 것은 지역사회 두루 다니며 사람 사이 관계를 주선하고 당사자의 곳에서 도움, 나눔을 소통시키는 방식입니다. 당사자의 곳에서 실제 생활 속에서 복지를 이루게 돕고 사람들 사이에서 일반 복지 수단 속에서 복지를 이루게 돕는 방식입니다. 이에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좋을지 컨설팅을 받으면서 궁리했고 기존에 잘해왔던 방식을 강화할 방안을 고민했습니다. 주민모임이 좀 더 주도적으로 활동하면서 그 안에서 좋은 관계를 맺으며 할 방안이 없을지 생각했습니다.

연구, 정책

동네 사람들 사업이 법과 정책, 동 중심 조직개편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양한 연구 책자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2017년 경기복지재단에서는 읍면동 복지허브화에 따른 사회복지관의 역할 진단 및 변화 모색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책자에 의하면 사회복지관의 외형은 동형적 확산이 이루어졌지만 1989년 관련 법규를 시작으로 대상 중심, 서비스 중심, 기능 중심으로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서서히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변화되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2018년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서는 지역 기반 공급체계 구축에 따른 사회복지관 역할 및 민관협력 강화방안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책자에 의하면 사회복지관 조직구조가 주로 3대 기능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통합적으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으며, 향후 커뮤니티케어가 추진될 경우 마을이나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모든 대상자를 포괄적으로 표적화하기 위해 3대 기능을 통합적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 조직화는 사회복지관의 실천 원칙이고 이를 사업으로 구현한 방식이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제공이 될 수 있지만 3대 기능을 중심으로 팀을 구성하기 때문에 팀 간 역할 구분이 경직되어 통합적 기능 작동이 부족하기에 통합적으로 작동되는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사회복지 환경이 변화되면서 사회복지관의 정체성과 기능을 적극적으로 성찰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주민을 만나고, 조직하고 변화시키는 역할과 기능을 가지면서 그 안에서 복지관의 주도성을 키우는 것 보다 주민들의 주도성과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지역사회의 공동체성을 강화하는 쪽에 더 중점을 두고 일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을 보니 동네 사람들 사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주민제안 제도, 주민 참여예산 제도 등 점차 주민이 직접 제안하고 기획하는 정책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제4기 강서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살펴봤습니다. 자치주권 확립을 통한 지역자생력 복원이 추진전략 중 하나입니다.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주민 간 상생 협력, 주민주도 조직 육성강조,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재구성이 전략입니다. 추진전략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로는 문재인 정부 사회정책, 제2기 서울시 마을공동체기본계획, 민선 7기 강서구청장 공약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관은 과거부터 해왔던 사업과 시군구에서 원하는 정책 사업의 틀에서 운영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2004년부터 장애인기능특화복지관으로 선정되어 장애인들과 다양한 사업을 진행했고, 장애인연합회라는 조직운영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전체 사업 중 60% 이상 장애인 사업을 맞추기에 한계가 있었고, 복지관의 균형 있는 사업 운영을 위해서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2016 방화권역 지역사회조사

2016년 강서구 방화권역 종합사회복지관이 모여 방화동 지역통합에 대한 임대 비임대 아파트 주민의 인식 및 욕구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전체 결과 중 본 기관이 위치한 11, 12단지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지역사회 공동체 활동으로 인해 지역사회가 긍정적으로 변화 되었다고 생각하시는 질문에 대해 다양한 공동체 활동이 지역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켰다고 응답한 주민들이 많았습니다.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임대 단지가 3.17점으로 비임대 단지보다 0.03점 높은 점수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주민교류, 공동체 의식 향상, 지역사회 변화, 마을행사로 구분되었고 그 외에 이웃 간의 소통이 많아짐으로써 외로움이 덜해지고 참여 기회가 생김으로써 소속감이 생긴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2017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위한 복지관의 역할

2017년 본 기관에서는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위한 복지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FGI를 진행했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이웃들과 어울릴 수 있는 활동을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은 모임, 마을 축제, 대화 등 서로 이야기 나누면서 어울릴 수 있는 활동을 희망하셨습니다.

살기 좋은 마을이 되기 위해서는 소통하며 어울려 살아야 하고,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웃과 모임을 통해 소통의 장을 만들고 다양한 이야기가 오고 가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대상 구별 없이 다양한 모임들이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관에서 도와야 하며, 일상 속에서 이웃들이 부담 없이 좋은 관계를 맺으며 활동할 수 있도록 느슨한 관계의 모임이 지역사회 곳곳에 많아지길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웃 간의 긍정적인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사업도 진행한다면 주민들이 서로에게 가지고 있는 부정적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하는 데 도움 될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2017~2018 서울시복지재단 복지공동체사업 현장연구 보고서

동네 사람들을 준비하면서 주민 주도성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궁금했습니다. 경험치를 통해 나오는 것 말고 연구를 한 내용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2017년과 2018년에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진행한 복지공동체사업 현장연구 보고서가 생각났습니다. 반포종합사회복지관에서 2년에 걸쳐 주민 주도성 개념분석 연구를 진행했고 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최근 사회복지현장에서는 주민주도 또는 주민 주도성이라는 용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주도해서 일하던 방식이 아닌 주민이 주도해서 지역의 현안을 스스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2017년 주민 주도성 개념분석연구에 따르면 주민이 생각하는 주도성은 자발성, 목적성, 공공성, 협력성, 민주성의 개념으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자발성은 자발적으로 스스로 해나감, 활동에 직접 참여함의 범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은 주민 활동의 발굴, 의사결정 참여, 과업 등을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과 활동을 직접 기획하고 진행, 평가까지 해야 주민 주도성이 있는 주민이라 인식했습니다. 목적성은 주민 활동에 참여하는 개별 주민과 집단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뭘 해도 좋고, 목적이 없는 모습은 주민 주도성의 부재 상태입니다. 공공성은 지역에 관한 주인의식과 이웃사촌 실현에 관한 범주로 나뉩니다. 지역에 대한 주인의식은 나오는 상관없는 이웃

과 지역에 관한 문제나 일 따위를 자기의 일로 인식하는 부분이며 이웃 사촌 실현은 주민 주도성의 목적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협력성은 주민 주도성을 이뤄가는 과정상의 개념으로 어울려 일함을 말합니다. 주민들이 각자 잘할 수 있는 일들로 힘을 모아 어울려 일해야만 주민 주도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민주성은 지역에 관한 주인의식에 근간하여 주민이 도모하고자 하는 일을 해결해 가기 위해 공공기관을 포함한 단체에 적극적 요구를 펼치는 행위입니다. 주민으로서는 지역사회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 관련 기관에 요구하여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을 주민 주도성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주민 주도성 개념 요소들은 무척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달성하기 어려운 이유로는 주민이 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체로 재원, 공적 자원, 외부 행정, 예산 지원과 같이 활동을 수행하는데 현실적으로 필요한 물적 자원을 언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이 주민 활동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산 지원이 마중물이 되어 주민들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거들어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본 연구보고서가 사업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귀한 연구 진행한 반포종합사회복지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선행기관 조사

처음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 선행기관 조사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는 기관에 직접 전화해서 묻거나 결과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주민모임이 좀 더 주도적으로 활동하면서 그 안에서 좋은 관계를 맺으며 활동할

방안이 없을지,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첫 번째, D종합사회복지관은 마을지향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모임을 조직화하여 주민주도로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목적으로 주민동아리 지원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동아리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수립, 지역사회활동으로서의 연계 가능성, 참여자들의 의지, 추후 복지관 사업 연계 활동 가능 유무, 사업설명회 및 활동공유회 참석 가능 여부를 토대로 심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 사업을 토대로 지역 내 주민모임 및 활동에 대한 욕구를 확인하였고 자체 동아리 활동에서 더 나아가 지역사회 재능 나눔으로 확대되는 성과와 주민동아리 참가자들의 지역사회 나눔 활동에 대한 긍정적 피드백을 알 기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S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지역 내 주민모임으로서 발전 가능한 동아리 발굴, 기관 내 발생한 주민모임이 아닌 지역 내 주민모임과 연계 시도, 다양한 신규주민의 복지관 이용 계기 마련을 목적으로 주민동아리 지원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기관과 주민동아리와의 연대를 형성하고 신규주민의 유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신규 동아리가 아이들과 어르신들과 함께 활동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성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많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공모 제안하는 방식으로 주민동아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마을이 변하고 주민의 주도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 사업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선행기관 사례를 통해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사업설명회의 중요성에 대해 알 기회가 되었습니다. 주민을 만나

사업에 관해 설명하고 구체적인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주민에게 전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에 공모절차를 잘 준비하여 지역주민이 동네 사람들 사업에 잘 참여할 수 있게 돕고자 합니다.

동네 사람들 홍보

주민모임의 주도적 활동과 관계를 돕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주민모임 공모사업 동네 사람들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이 사업에 대한 정보를 잘 아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과 방화 11단지 아파트 곳곳에 홍보지를 부착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많은 분이 관심 가져주시길 기대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오가다 보신 분들이 동네 사람들 사업에 관심 가져주셨습니다. 길 가다 만난 분, 복지관에 오신 분 등 만날 때 그 자리에 서서 바로 설명해드렸습니다. 만나서 직접 설명해드리니 더 관심 가지고 잘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 알고 지내고 있던 1동에 사는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1동 반장님이 불러주셨습니다. 가보니 옹기종기 의자에 앉아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르신들에게 홍보지를 나눠드리고 그 자리에 서서 사업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해보자고 제안도 했습니다. 어르신들이 관심을 가지셨고, 어떤 모임을 할 것인지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누가 참여할 것인지, 모임 이름은 무엇으로 할 것인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르신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앞으로의 일들이 기대되었습니다. 선정이 되지 않더라도 함께 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첨되어야 한다면서 잘 적어야겠다고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계획서 작성이 어려울 수 있으니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잘 정리해서 작성하는 것을 돕겠다고 했습니다. 가산점이 부여되는 설명회도 꼭 참석하겠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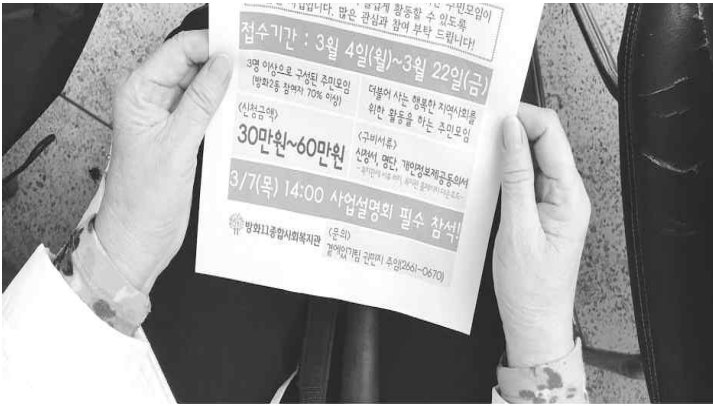
“설명회 하는데 누가 갈 수 있어요?”

“시간 되는 이가 좀 가면 좋겠어.”

“그럼 나랑 저이가 갈게.”

“두 시까지 맞지?”

“네. 두 시까지 복지관 지하강당으로 오시면 됩니다.”



홍보지 보고 있는 어르신 모습

미세먼지도 심하고 바람도 많이 불었지만, 이야기 잘 들어주셨습니다. 좋은 자리 주신해주신 김 반장님께 고맙습니다. 사업설명회 준비 잘 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김은희 부장

어르신께서도 동네 사람들에 관심이 많으시네요. 동네에서 어르신들이 머리 맞대고 함께 궁리하실 것을 상상하니 참 신이 납니다. 권민지 주임 덕분에입니다.

김미경 과장

오늘 오신 어르신들과 미리 만났었군요~ 관심 가져주시는 것만으로도 좋은데 열띤 토론까지 하셨군요~ 어떤 모임으로 내실지 기대됩니다! 고생 많았어요. 권민지 주임님~

양원석 소장

미리 만나 설명하고 동기를 드리는 지혜! 잘 읽었습니다. ^^



진행

사업설명회

사전 사업설명회

3월 7일 목요일 동네 사람들 사업설명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기존에 잘 알던 모임 분들도 오시고 얼마 전 만났던 1동 할머니들도 오셨습니다. 그리고 처음 뵙는 분도 오셨습니다. 많은 분이 관심 가지고 참여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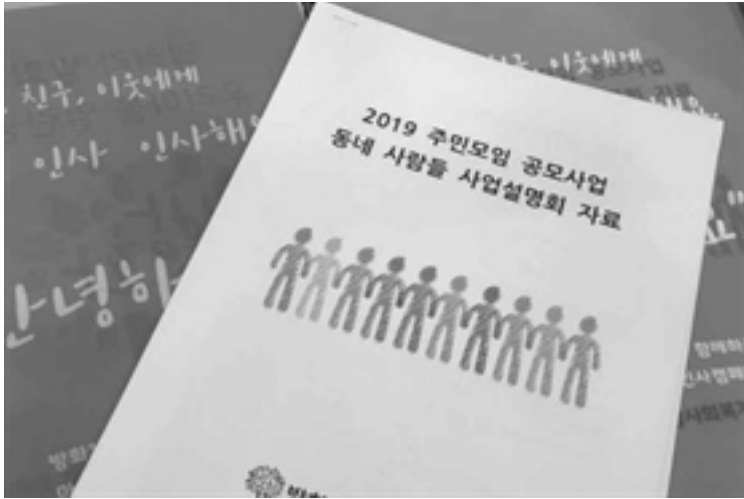
처음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사업을 진행하는 여러 기관에 전화해서 정보를 얻었습니다. 정보를 얻으면서 공통으로 알게 된 점은 주민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리했습니다. 생각을 정리하면서 세 가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첫째, 동네 사람들 사업 취지에 관해 설명을 잘하자!

둘째, 신청서 작성을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도록 돕자!

셋째, 선정기준에 대해 잘 설명하자!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었기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주민들 간의 불편한 오해나 분란이 생기진 않을까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설명회 때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명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사업의 취지와 선정기준에 대해 잘 설명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설명회 준비자료

동네 사람들은 주민모임이 활동에 대해 직접 공모 제안하는 방식으로 주민모임의 주도적 활동과 관계를 돕는 사업입니다. 주민분들이 잘 이해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설명회 자료와 PPT를 준비했습니다. 사업 목적, 진행 과정, 선정기준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특히 궁금해하실 선정기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선행연구가 도움 되었습니다. 자료를 토대로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면 좋을지 궁리했고 목적을 생각했습니다. 고심 끝에 8개의 항목¹⁾으로 구성했습니다. 설명회가 진행되는 동안 잘 경청해주셨습니다. 궁금한 것들도 많이 물어봐 주셨습니다. 많은 분의 도움과 관심 속에서 설명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제 의도가 조금이라도 주민분들에게 잘 전달되었길 소망합니다.

1) 목적성, 협력성, 자발성, 공공성, 활동내용, 참여 의지, 설명회 참여, 지역과 인원수



사업설명회 모습

김은희 부장

구체적이고, 명확한 설명으로 설명회 참여하신 분들 이해를 잘 도왔지요. 선행기관에 잘 알아보고 꼼꼼히 준비해서 가능했습니다. 얼마나 지원 신청하실지 궁금해지네요~ 다음도 기대합니다. 권민지 주임의 실천을 응원합니다.

김미경 과장

생각보다 많은 분이 오셨어요. 다들 진지하게 들으시고 질문도 많이 하셨지요. 걱정스러운 점이 있었으나 주민 입장에서 생각하며 무엇을 어떻게 설명할지 궁리하고 선행 연구했지요. 권민지 주임이 이렇게 잘 준비하고 이해하시기 쉽게 안내한 덕에 설명회 잘 마칠 수 있었어요. 알아서 척척 추진하는 권민지 주임님~ 늘 고마워요~~

양원석 소장

구체적이고 명확한! 이곳저곳 선행경험 찾아보고 적용하시는 지혜. 응원 드려요. 잘 읽었습니다. ^^

선정모임 사업설명회

동네 사람들은 주민모임이 활동에 대해 직접 공모 제안하는 방식으로 주민모임의 주도적 활동과 관계를 돕는 사업입니다. 동네 사람들에 지원해주신 모임은 총 11곳입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주셔서 감사하기도 했지만, 정성껏 작성해주신 내용을 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되는 부분이 더 컸습니다. 관장님, 부장님, 김미경 과장님, 정우랑 팀장님과 모여 궁리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면서 작성하셨을지 생각하니 감사함이 느껴졌습니다. 각자 읽으면서 느꼈던 부분을 이야기 하며 생각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결론은 마을에서 이웃들과 좋은 관계 맺으며 즐겁게 활동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원해주신 모든 모임을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단, 공공성이 있는 모임에 점수를 더 부여하여 신청금액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 서류를 살피며 의논하는 직원들 모습

선정모임 설명회를 진행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복지관 지하강당으로 초대했습니다. 각 모임에서 1~2명 오신 곳도 있었고, 전체가 다 와주신 곳도 있었습니다. 관심 가지고 참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민들께 인사하는 관장님의 모습

선정모임 설명회를 준비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리했습니다. 생각을 정리하면서 세 가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첫째, 최대한 복잡하지 않고 쉽게 활동할 수 있게 거들자!

둘째, 선정결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

셋째,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자료를 준비하자!

준비한 자료를 하나씩 보여드렸습니다. 진행하면서 고민했던 부분, 선정기준과 결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사전에 관장님께서 잘 설명해주셔서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활동을 하는 모임인지 다른 분들도 아셨으면 해서 모임별로 증서도 준비하여 전달했습니다. 서로의 활동을 응원하고 격려했습니다.

활동은 주민분들이 스스로 계획, 진행, 평가합니다. 저는 모이실 때 미리 연락하고 놀러 가기로 했습니다. 2019년 동네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활동할지 지역에 이웃과 인정이 어떻게 생동 될지 기대됩니다. 모든 모임의 활동을 응원하겠습니다.

〈동네 사람들 선정모임〉

이웃들과 좋은 관계 맺으면서 즐겁게 탁구 하는 **탁구친구 동아리**,
꽃구름 탁구동아리

주변 이웃들을 잘 살피고 좋은 관계 맺으며 활동하실 **정가든**

이웃과 천연제품 만들기를 구실로 좋은 관계 맺으며 활동하실 **천연과 친해져**

이웃들과 미술 작품 활동하며 좋은 관계 맺으실 **네잎클로버 미술동아리**

미술과 공예를 구실로 이웃들에게 재능을 나누고 좋은 관계 맺으며 활동
하실 **소드래**

이웃과 함께 맛있는 음식 만들어 나눠 먹는 **요리동아리 삼시세끼**

휠체어 수리 봉사도 하고, 회원들과 좋은 관계 맺으며 즐겁게 활동할 **무궁화회**

이웃들과 즐겁게 노래 부르며 활동할 **삶을 노래하는 방화마을 합창단**

1동 어르신들이 모여 함께 이야기 나누고 관계 쌓아가는 **꽃보다 할매**

책을 구실로 아이들을 만나고, 회원들 간의 좋은 관계 맺으며 활동하실
꿈, 자라다



동네 사람들 선정모임 모습

김상진 관장

행복한 고민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앞으로도 주민이 주인 되어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김은희 부장

계획보다 많은 모임이 지원해주셔서 지원금액이 신청했던 것보다 적지만, 모두 그 안에서 잘 이루어 하십니다. 마을에서 관계 맺으며 다양한 활동 하시길 바라요. 이웃동아리 활동 응원합니다!!

양원석 소장

쉬운 활동 거들기, 구체성, 쉬운 설명 마음 쓰시는 노력이 느껴집니다. 11곳 활동이 마을에 힘이 될 겁니다. ^^

모임 ① 꽃보다 할매

준비

1등 할머니들이 동네 사람들에게 신청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신청서를 처음 쓰다 보니 작성하는 것을 돕기로 했습니다. 우선, 김 반장님께 전화했습니다. 만나기 어려운 상황이라 하셨습니다. 이 씨 어르신과 박 씨 어르신 먼저 만나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르신. 권민지입니다. 언제 시간 괜찮으세요?”

“아무 때나 괜찮아요.”

“그럼 다음 주 월요일 오후에 괜찮으세요?”

“네. 우리 집으로 와요.”

“알겠습니다.”

월요일 오후가 되어 이 씨 어르신 댁으로 갔습니다. 도착하여 조금 기다리다 보니 박 씨 어르신도 오셨습니다. 신청서 작성을 위해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며 이야기 나눴습니다. 모임 이름, 활동내용, 구성인원, 참여 동기, 차별성, 예산과 관련해서 어르신들의 생각을 여쭙봤습니다. 지난번 이야기 나누는 것이 있어서 술술 풀렸습니다. 누가 참여하면 좋을지, 할머니들 상황이 어떤지 세심하게 생각하시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서로를 정말 잘 알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들과 함께 나누는 이야기를 정리해서 작성했습니다.

“어르신들이 나는 내용을 적어봤는데 맞을까요?”

“맞아요. 잘 적어줘서 고마워요.”

“그런데 내일이나 모레 함께 참여하시는 다른 어르신들과도 함께 의논하면 좋겠어요.”

“우리는 뭐 수시로 만나니깐. 알겠어요.”

“네. 새 종이에다가 어르신들이 다시 이야기 나는 내용 정리해서 주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어르신들과 함께

1동 어르신들은 주로 함께 차 마시고, 밥 먹고, 수다 모임을 하기로 했습니다. 5월과 9월엔 직접 소풍 계획을 세워 떠날 예정입니다.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의지하고 정답게 잘 살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잘해오셨던 일들을 많은

분과 풍성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일상을 함께 공유하며 앞으로도 좋은 이웃으로 잘사실 수 있길 소망하고 응원합니다.

김상진 관장

어르신들께서도 함께 해주시니 든든합니다.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도운 권민지 주임님! 애썼어요.

김은희 부장

기존부터 있던 모임이 아님에도 이웃에서 서로 만나는 어르신들께서 함께해 볼 마음을 내고 지원 신청해보려 하시는 용기가 대단합니다. 어르신들께서 직접 하실 수 있도록 잘 거들어 주어 고맙습니다. 권민지 주임! 사진 너무 잘 나온 거 아녀요?

김미경 과장

권민지 주임님 사진 귀여워요~ 어르신들 모임 돕는 과정이 귀합니다. 어떤 활동으로 꾸려 가실지 궁금하고 기대됩니다. 동네 사람들 응원해요~

정한별 사회복지사

동네 사람들이 있으니 동네에 사람들이 모일 구실이 생기는 것 같아요. 동네 주민분들이 참 이해하기 쉽게 사업이 되어있어요. 만약 우리 동네에도 이런 사업이 있다면? 저는 서로 알고 지내지는 못하므로, 오픈 카톡방을 만들어 같이 해보자고 모의할 것 같아요. 아니면 화곡동 주민 직원들과 함께...? ㅎㅎ

양원석 소장

필요하신 만큼 도와드리고 이를 참고해서 직접 작성하시도록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잘해오셨던 활동 더 풍성하시도록 부지런히 다니시니 훌륭하세요~ 잘 읽었습니다. ^^

봄 소풍 계획 세우기

꽃보다 할매는 혼자 있으면 심심하니 서로 힘들거나 어려울 때 도와면서 한마음으로 지내고, 즐거운 노후를 함께 보내고자 하는 1동 어르신들의 모임입니다.

따뜻한 5월이 되었습니다. 어르신들과 함께 봄 소풍 가기로 한 것이 생각났습니다.

“반장님. 안녕하세요? 권민지입니다.”

“네. 권 주임. 어떤 일이에요?”

“저희 지난번에 봄 소풍 가기로 했잖아요. 그거 언제 가면 좋을지 의논하려고 전화했어요.”

“안 그래도. 나도 연락하려고 했어요. 할머니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나는 아무 때나 괜찮아요.”

김 반장님과 약속을 잡았습니다. 박 씨 어르신과 이 씨 어르신에게도 연락해주신다고 하시고 장소도 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5월 10일 금요일에 반장님 댁에서 모이기로 했습니다.

김 반장님과 이 씨 어르신, 박 씨 어르신과 모여 어디로 가면 좋을지 함께 의논했습니다. 많은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할머니들은 걸어 다니는 곳이 많으면 힘들잖아. 그 끌고 다니는 것을 차에 싣고 갈 수 없으니. 지팡이를 가지고 가야 해. 가까이 걷는 거라면 좋겠어.”

“이제 곧 장미 필 때 되지 않았어요?”

“현지답사를 가서 확실하게 살펴보면 좋겠는데.”

“6월이면 날씨도 더워지고, 미뤄지면 할머니들도 기다리니깐. 5월에 그냥 갔다 와버려.”

“꽃박람회 가봤는데 사람도 많고 힘들어서 걷기 힘들 건데.”

“할머니들이 멀미할 수도 있으니 멀지 않은 곳으로 가면 좋겠어.”

어디가 좋을지 어르신들과 이야기 나누다 보니 이전에 나들이를 다녀왔던 부천 무릉도원 수목원이 생각났습니다. 이맘때쯤 튜립 축제를 했었고, 거리도 괜찮고, 넓지도 않고, 한적하고, 어르신들이 걷기에 괜찮을 것 같아 추천해드렸습니다.

“어르신. 혹시 부천에 무릉도원 수목원이 있는데. 여긴 어때요? 거리도 가깝고, 한적하게 걸을 수 있어요.”

예전에 다녀온 사진을 한 장씩 보여드리면서 설명해드렸습니다. 꽃과 나무가 어우러진 곳이라 좋다고 하면서 마음에 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지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수목원에 전화하여 직접 정보도 알아봤습니다. 개보수 예정은 아직 없다고 하여 부천 무릉도원 수목원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꽃이 없어도 괜찮아. 어딘가를 함께 간다는 것이 즐거운 거지 뭐~”
장소를 정한 뒤 점심 메뉴를 정했습니다.

“점심은 뭐 먹으면 좋을까요?”

“글쎄. 따뜻한 국에 밥만 먹어도 좋지.”

“할머니들은 매운 음식 잘 못 먹어서 그것만 피하면 좋겠어.”

“고기 먹으면 좋겠는데. 작년에 우리 수육 해서 나눠 먹었잖아. 그 이야

기를 아직도 할머니들이랑 모이면 해. 그때 아주 좋았다고 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점심 메뉴로는 불고기 전골, 갈비탕 두 가지 정도로 정리되었습니다. 맛있는 곳을 찾아보고 예약하기로 했습니다. 식당은 계단이 없어야 하고, 좌식이면 불편하다고 이야기해주셨습니다. 그 부분 고려해서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함께 가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세심하게 계획 세워주신 어르신들께 감사했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도 당신들의 일이기에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들과 함께

봄 소풍을 기다리셨다는 이야기와 작년에 함께 했던 수육 잔치를 좋은 추억으로 가지고 계신 어르신들을 생각하니 빨리 놀러 가고 싶습니다. 오랜만에 콧바람 쐬러 가는 분들도 많다고 하셨습니다. 걷기 불편해서 안 간다는 어르신도 계셨지만 다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서로 도우면서

가면 된다고 해주셨습니다. 봄 소풍 당일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질지는 모르겠지만 어르신들과 잘 준비해서 즐겁게 다녀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봄 소풍도 어르신들께 좋은 추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상진 관장

함께 모여 의논하고 진행하는 모습이 참 좋습니다. 멋진 추억 만드시기를 응원합니다.

김은희 부장

‘꽃이 없어도 괜찮아. 어딘가를 함께 간다는 것이 즐거운 거지 뭐~’ 어르신들은 이웃과 함께하는 소중함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꽃보다 할매이신 가 봅니다. 할매들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길 응원합니다. 어르신들께 잘 여쭙고 의논하며 거드는 권민지 주임 고맙습니다.

김미경 과장

동네 주민들의 관계를 돕는 '동네 사람들' 그중에서 '꽃보다 할매'는 권민지 주임님이 새롭게 잘 거들고 있는 모임이지요. 1동 할머니들이 모여 서로 힘들거나 어려울 때 도우면서 한마음으로 지내고, 즐거운 노후를 함께 보내고자 하는 모임,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에, 새로운 모임이라 조금 생각하고 염두에 두어야 할 점들이 있으나 이 모임을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권민지 주임님이 거드니 나들이 가시기 어려웠던 이웃 어르신들 모여 스스로 계획하신 대로 여행도 가시고 드시고 싶은 음식도 나눠 드시고 기쁘고 즐거우실 겁니다. 그렇게 관계가 더 돈독해지시고 정이 더 깊어지시겠지요. 이 관계와 이 거둬이나중 다른 때 다른 사업으로 이어질 겁니다.

권대익 주임

꽃보다 할매가 이런 모임이었군요! 봄 소풍 장소 정하는 과정 놀라워요. 어르신과 함께 묻고 의논하며 결정했군요. 부천 무릉도원 수목원을 제안하고 직접 사진을 보여드리며 설명하고 지금 상황이 어떤지 직접 연락하실 수 있도록 부탁하고! 어르신께서 나들이를 이루셨어요. 작년 수육 잔치를 아직도 이야기하시는군요! 재밌었어요. 이런 자연스러운 만남과 모임이 동네에 많으면 좋겠습니다. 동네 사람들, 꽃보다 할매, 응원합니다. 권민지 주임님도 응원합니다. ^^

양원석 소장

직접 공리하시니 섬세하게 세심하게 꼼꼼하게 준비하시네요. 실무자라면 미처 몰랐을 부분까지~ 게다가 집에서 함께 모여서~ 무릉도원 수목원 가기 전에 이미 꽃보다 할매 모임의 목적을 이루셨네요~ ^^

봄 소풍 이야기

원종배 선생님은 어르신 사업을 주로 담당하고 있고, 1동도 저와 함께 담당하고 있습니다. 1동 어르신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흔쾌히 가겠다고 해주어 고맙습니다. 봄 소풍 떠나기 전에 미리 만나 인사하고 얼굴 익히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어르신들이 모이는 날 함께 가서 인사하며 소개했습니다.

놀러 가기로 한 날이 되었습니다. 1동 앞에서 어르신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김 반장님은 직접 집에서 따뜻한 물, 시원한 물, 커피를 준비해 오셨습니다. 수목원에 가서 나눠 먹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여러 가지 준비하셨다고 했습니다.



김 반장님이 준비해주신 어르신들과 함께 나눠 마실 차와 음료

길 가다 만나는 분들도 반갑게 인사해주셨습니다. 정 씨 어르신을 아는 분은 소풍 간다고 하니 요구르트를 넉넉하게 주시면서 잘 다녀오라고 인사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을 기다리다 보니 함께 가기로 했던 어르신 한 분이 안 보이셨습니다.

“어르신. 김 할머니는 왜 안 오세요?”

“아들이 이사한대. 그래서 못 간다고 어제저녁에 우리 집에 왔었어.”

“이거 가는 거 많이 기다렸었는데 아쉽네.”

“그러게 말이야. 제일 가고 싶어 했는데.”

손꼽아 기다리던 봄 소풍을 가지 못해 많이 아쉬워하셨다고 합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아쉬워하셨습니다. 가을에 가는 소풍은 꼭 함께하길 바랐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르신들이 다 모이셨습니다. 다들 멋지게 차려입고 오셨습니다. 오랜만에 12인승 스타렉스가 빈자리 없이 꽉 찬 상태로 이동했습니다. 가면서 오늘 가는 곳을 설명했습니다. 사전에 모여서 준비해준 분들에게 박수로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 나누는 어르신들 모습

부천 무릉도원 수목원에 도착했습니다. 어르신들이 걷는 것을 많이 힘들어하셨습니다. 준비할 때부터 걷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이야기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걸으실 수 있는 만큼 걷고 그러다가 쉬고, 또 걸기로 했습니다. 수목원에서 꽃도 보고, 분수도 봤습니다. 앉아서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소풍 온 어린이집 아이들에게 반갑게 인사하며 손도 흔들어주셨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나눠 준 김밥과 어르신이 직접 싸 온 유부초밥

두 씨 어르신은 집에서 직접 유부초밥 싸 오셨습니다. 배고플 테니 함께 나눠 먹려고 준비하셨다고 했습니다. 옆에 앉아 있던 어린이집 선생

님은 어르신들과 나눠 먹으라고 김밥 한 줄 주셨습니다. 다 함께 맛있게 나눠 먹었습니다. 먹으면서 어르신들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렇게 소풍 오니 어떠세요?”

“여기 공기가 서울과 다르게 좋네~”

“꽃향기도 좋고.”

“25년 만의 이런 곳은 처음 와봐요. 다음에 가족들과 올 거니깐 그 안내지 좀 챙겨줘요.”

“나오니 마음이 상쾌하고 좋네요.”

“의자에 앉아 있으니 내 세상이네.”

“내가 지금 나이가 90이요. 이렇게 나오니 좋아.”



부천 무릉도원 수목원에서 어르신들 모습

어르신들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좋은 곳에 오니 가족들과 함께 오고 싶다는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기억에 남았습니다. 어르신들이 오랜만에 나오신 만큼 이곳저곳 구경하길 바라는 마음이 컸지만, 다리가 아파

많이 걷지 못하셨습니다. 나이가 드니 어쩔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나오니 좋다고 하셨습니다. 김 반장님이 짝꿍도 정해주셨습니다. 서로 도우면서 다니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각자 짝꿍을 잘 챙겨 주셨습니다. 시간이 될 때마다 어르신들 사진도 찍어드렸습니다. 봄 소풍이 끝난 뒤 각자 나온 사진을 선물해드리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수목원을 구경하고 어르신들이 드시고 싶다고 하셨던 갈비를 먹으러 갔습니다. 서로 반찬을 챙겨주고, 상황에 맞게 고기 크기도 잘라주셨습니다. 잘 먹고 있는지 확인도 하셨습니다. 좋은 분위기 속에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점심을 다 먹은 후 장미가 보고 싶다고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근처에 있는 장미공원도 갔습니다. 몇몇 어르신은 구경하러 가셨고, 나머지 어르신들은 다리가 아파서 근처에 있는 장미만 구경했습니다. 그래도 즐거워하셨습니다. 장미 보게 해 줘서 고맙다고 공원에 가자고 제안한 어르신이 옥수수도 사주셨습니다.



어르신이 사준 옥수수

돌아오는 길 구성진 노랫소리 들으며 왔습니다. 1동에 도착해서는 막 씨 어르신이 아이스크림도 사주셨습니다. 함께 맛있게 나눠 먹으며 인사했습니다. 특별하거나 거창하진 않아도, 이곳저곳 둘러보지 않아도 같은 동네에서 정답게 사는 분들이 함께할 수 있었던 시간 자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도 각자 봄 소풍을 즐기셨습니다. 날도 무더웠고, 걷는 것도 힘들었지만 나오니 좋다고 이야기해주신 어르신들의 목소리가 기억에 남습니다. 이번 봄 소풍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함께 즐거운 추억을 쌓는 일들이 많이 생동 되길 소망합니다. 어르신들과 함께 계획해서 떠날 가을 소풍도 기대됩니다.

김상진 관장

함께 묻고 의논하고 준비하니 더 의미 있는 나들이가 되었네요. 함께 하신 어르신들이 좋은 날씨에 행복하셨겠습니다. 응원합니다.

김은희 부장

동네에서 같은 아파트, 같은 동네 살면서 함께 한 나들이는 처음이셨겠지요? 형형색색 예쁜 꽃들 보며 얼마나 즐거우셨을까요? 나들이 다녀온 추억이 집집이 모여 차 한잔할 때에도 두런두런 이야기거리가 되겠지요. 사람 사는 내음이 묻어납니다.

권대익 주임

김밥, 유부초밥, 갈비, 옥수수, 아이스크림~ 풍성한 먹거리만큼 나들이도 풍성했겠어요. 부러워요.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잠시 나오기만 하셔도 힘이 나셨겠어요. 주선한 권민지 선생님 애쓰셨어요.



부천 무릉도원 수목원에서 어르신들 모습

원종배 사회복지사

권민지 주임님! 함께 가도록 소개,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동 어르신들과 담소 나누며 맛있는 갈비도 먹었습니다! 김 반장님과의 만남도~ 소중한 자리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함께해요.

이미진 사회복지사

와우~~ 먹을 것들이 넘쳐나는 나들이네요!! 부러워요...!!!

양원석 소장

당신께서 제안하고 준비하고 다녀오시고 관계하시도록 잘 도와주시니 훌륭하십니다. 소박한 가운데 복지를 이루니 더욱 훌륭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녁 같이 먹을래요?

날씨가 추워져서 놀러 가기 힘들 것 같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함께 모여 밥 한 끼 먹자고 하셨습니다.

“아들과 함께 밥 먹으러 왔다가 알게 된 식당이 있는데 거기가 맛이 괜찮더라고. 거기 가보면 어때요?”

이 씨 할머니가 제안해주셨습니다. 가격도 적당했습니다. 김 반장님이 다른 어르신들에게 물어봐 주기로 하셨습니다.

“다른 할매들도 좋다네요. 월요일 저녁으로 예약해요.”



어르신들과 함께 먹은 맛있는 설렁탕과 돌솥밥

예약한 식당에 가서 자리 잡고 앉으셨습니다. 뜨끈한 설렁탕 국물에
돌솥밥이 함께 나왔습니다.

“국물이 싱거우니까 이거 좀 넣어.”

“김치 먹기가 힘들지? 내가 잘라줄게.”

“위메. 너무 싱겁네. 더 넣어봐.”

“아니 왜케 짜게들 먹어~”

서로 챙겨가면서 식사하셨습니다. 정겨웠습니다.

“이것 좀 더 먹어봐. 부족하지?”

“다 함께 먹으니 맛이 좋네.”

“너무 맛있어.”

다들 좋아하셨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건 돌솥밥 누룽지가 조금 타서
나온 것들이 있어서 드시지 못한 분도 계셨습니다.

“이것 좀 먹어. 내건 안 탔어.”

“구수하네. 내건 너무 썩어.”

후식으로 아이스크림도 먹고 커피도 마셨습니다. 서로 챙기고 나누니
맛도 더 좋고 즐거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저녁 먹으니 어떠세요?”

“소감? 소감 없어. 그냥 좋다 좋아~”

이렇게 함께 모여서 먹으니 더 맛있게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것보단
역시 여럿이 함께 먹는 것이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동네 사람들 활동에
참여하면서 느끼는 점이 많습니다. 활동이 특별하거나 거창하지 않습니

다. 그저 일상을 나눕니다. 소소합니다. 당신들의 일기기에 스스로 준비 하십니다. 웃음이 있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앞으로도 동네에서 어울리며 즐겁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꽃보다 할매 어르신들 모습

양원석 소장

맞아요. 일상이 담박하고 소박해요. 그래서 언제나 할 수 있고 또 지속할 수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사업평가

올해 활동하면서 어떠셨는지 이야기 나누기 위해 김 반장님과 약속을 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올해 꽃보다 할매 활동하면서 어떠셨어요?”

“같이 했던 할매들이 좋아라 했지. 자식들이 데리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걸 못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러니깐 너무 좋아했어. 그런데 나이가 들다 보니 자주 나가는 게 힘들더라고. 그래도 이렇게 모이니 좋긴 좋지.”

“좋아하셨다니 저도 좋네요. 꽃보다 할매 하기 전에도 평소 잘 알고 지내셨잖아요. 혹시 올해 이렇게 놀러도 가고 활동하면서 관계가 변화된 부분도 있으셨어요?”

“더 친근하고 가까워진 것 같은 느낌이지. 더 자주 보게 되고. 꽃보다 할매도 그렇지만 우리가 오물딱 조물딱도 했잖아. 일주일에 고정적으로 할 일이 있다 보니 서로를 많이 챙겼어. 시간 되면 같이 가자고 부르고 그랬지. 그런 것들도 무관심해도 될 일인데 어찌 되었던 서로를 챙기고 하는 것들이 더 많아졌지. 서로를 더 잘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 그러면서 관심도 가지게 되고 그러는 거지. 어르신들이 집에서 나오지 않으면 누가 거길 들어가 보겠어? 안가잖아.”

“맞아요. 그럼 평소에 사시면서 더불어 산다는 의미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해보셨어요?”

“여기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나이 든 사람도 많고. 내가 나를 돌보기도 힘든데 옆에 사람을 돌봐주는 건 힘든 것 같아.

그래도 우리 등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앞장서서 잔소리도 하고 모이면 같이 놀고 불만 사항도 이야기할 수 있게 하거든. 누가 편찮으신지, 식사는 했는지 서로 안부도 묻고, 아는 척하고, 도움 주고 있지. 안부 주고받고 하는 것이 더불어 산다는 거에 시작한 것 같아요.”

“맞아요.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 관계의 시작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평소애 나눔에 관해 생각해보신 적 있으세요?”

“음. 부족한 것을 서로서로 나누는 게 나눔 정신 아닌가? 서로 관심 가져주는 것도 되고, 음식을 나눠 먹는 것도 되고, 정을 나누는 것도 되고, 다 나눔이지 뭐.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준다는 것이 나눔의 시작 아닐까 생각해요.”

“맞아요. 뭐든지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꽃보다 할매 같은 모임이 있으니 이웃을 더 생각하게 되고 든든해져서 좋은 것 같다는 김 반장님의 이야기가 돌아오는 길에 계속 생각났습니다. 서로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지만 고정적으로 함께 만나면서 다양한 활동을 해보는 것도 어르신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년에도 어르신들이 이웃과 어울리며 즐겁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임 ② 소드래

만남

소드래는 2014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미술과 공예를 구실로 재능을 나누고 그 안에서 좋은 관계를 맺으며 활동하는 모임입니다. 시간이 흐르다 보니 소드래 선생님들이 너무 바빠지셨습니다. 이사 가신 분도 계시고 활동 범위가 넓어지시거나 일을 하시다 보니 예전처럼 만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4월에 모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꼭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선생님들을 만나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맛있는 점심도 먹고 인근 커피숍에 가서 시원한 음료도 마셨습니다. 일상, 자녀, 정책, 교육 등등 소드래 선생님들을 만나면 언제나 대화 주제가 풍성합니다. 그 안에서 미처 몰랐던 사실도 알게 되고 많은 것을 배우고 갑니다.



소드래 선생님들 모습

이전부터 이어져 있던 인연이 올해도 이어집니다. 각자 무척 바쁘시지만 올 한 해도 의미 있게 활동할 계획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5월부터는 어르신들의 호응이 좋은 오물딱 조물딱 시즌4가 진행됩니다. 주민들과 함께하는 열린 주방도 진행된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생길지 벌써 기대됩니다. 일상을 나누며 즐겁게 나아가고 있는 소드래 선생님들을 늘 응원합니다. 다음에 또 놀러 가겠습니다.

김상진 관장

요즘은 가끔 스치듯 인사만 드렸네요. 이른 시간 안에 차라도 한잔 나눌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김은희 부장

소드래 선생님들 사진으로 얼굴 보니 또 반갑네요~ 재능이 많으셔서 여러 활동으로 지역의 어르신께도, 요리 배움 필요로 하시는 분들께도 재능 나눠주시니 주변이 늘 풍성합니다. 고맙습니다.

권대익 주임

소드래로 모인 주민이 동네에서 여러 영향을 끼치며 활동하시지요. 이런 좋은 자리는 저도 데려가 주세요. 5월부터 진행하는 나눔 활동도 응원합니다.

양원석 소장

2014년부터 오래 만난 인연이네요. 만나면 좋으시겠어요~ 지역 어르신과 나누는 만남이 잘 풀리지길 기대합니다.

재능 나눔 이야기

올해는 소드래의 만언니인 김 선생님과 손 선생님을 중심으로 재능 나눔 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오물딱 조물딱,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주방을 진행하셨습니다. 직접 모든 활동을 계획하시고 필요한 물건도 사서 준비하십니다. 저도 시간이 될 때마다 선생님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보러 놀러 갔습니다.

열린 주방은 복지관 지하식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세운 계획에 따라 제가 포스터를 만들어드리면 직접 홍보하여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오이무침, 열무 얼갈이김치, 새콤달콤 레몬청, 채소 피클, 깍두기 만들기를 진행했습니다. 맛김치 만들기는 신청자가 없어 진행되지 못해 선생님들도 많이 아쉬워하셨습니다.



열린 주방에서 주민들과 함께 만든 채소 피클

관심은 있으나 여러 상황으로 인해 참여를 못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소규모로 진행되었습니다. 만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며 활동하셨다고 합니다. 진행된 내용은 도서관 밴드에 공유해주시고 저에게도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많은 분이 참석하지 않으셔도 선생님들이 가진 재능을 지역주민과 함께 나누는 과정이 귀하다고 생각합니

다. 참여하신 분들도 직접 배워서 만든 음식은 집에 가져가 맛있게 드셨다고 이야기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전하셨습니다.

어르신들과 함께 하는 오물딱 조물딱은 늘 웃음이 가득합니다. 냅킨아트, 팝아트, 손수건 그림, 압화액자, 레진아트, 비즈팔찌, 브로치, 클레이 등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 일상에서 필요한 물건 직접 꾸미고 만드십니다. 고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거리가 있으니 어르신들도 계속하길 원하십니다. 만든 물건은 집에 가져가 꾸며 놓는다고 하니 활동하는 선생님들도 더 보람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물딱 조물딱 시간에 함께 만든 팔찌

“할머니들을 계속 만나다 보니 정이 들었어요. 할머니들의 생각은 잘 몰라도 제 개인적으로는 할머니들에게 애정이 생기고 정이 생겼어요. 중간중간 아프다고 하면 걱정되기도 하더라고요.”

“어르신들도 오물딱 조물딱 엄청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깐요. 그래서 우리도 계속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어르신들이 마지막 수업이 다가올수록 내년에도 하는지, 언제까지 하는 것인지 물어보면서 아쉬워하셨어요. 그런 모습 보니깐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여기 와서 해보고 재밌어하고 좋아하시니깐. 책임감도 생겨요.”

올해도 미술과 공예, 김치 만들기를 구실로 당신들의 재능을 많이 나눠주셨습니다. 바쁜 삶 속에서도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활동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때로는 부담스러울 때도 있지만 활동을 통해 얻는 보람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활동을 계속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을 생각하는 선생님들의 마음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재능 나눔 활동이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다양한 재능을 주민들과 함께 나누며 더불어 사시길 소망합니다. 선생님들의 활동 늘 응원합니다.

사업평가

올해 활동하면서 어떠셨는지 이야기 나누기 위해 선생님들과 복지관에 서 만났습니다.

“선생님들 올해 활동하면서 어떠셨어요?”

“활동하는 건 좋았죠. 그런데 회계 관리하는 것이 힘들더라고요. 중간에 지원금을 정산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영수증을 계속 보관하기 힘들었거든요.”

“그러셨군요. 내년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활동하는 데 편할지 고민해보겠습니다.”

“내 돈이면 상관없는데 어찌 되었든 나랏돈을 쓰는 거잖아요. 돈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책임감을 느끼고 써야 한다는 생각이 많아서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러셨을 것 같아요. 내년에 잘 고민해보겠습니다. 올해 오물딱 조물딱과 열린 주방으로 재능 나눔 해주셨잖아요. 나눔에 대한 선생님들의 생각이 궁금해요.”

“그냥 내가 가진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과 함께 공유하고 내 것을 나눠주는 게 좋아서 하고 있어요. 복지관에서 여러 활동하면서 뿌듯함도 많이 느끼고요.”

“맞아요.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면서 내 가치가 높아진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사소한 손재주 하나로 어디 가서 선생님이라는 소리를 들어보겠어요.”

“활동하면서 많이 보람되었을 것 같아요. 요즘 소드래 선생님들 간의 관계는 어떠세요?”

“자주 만나진 않아도 뭔가 급한 일이 있거나, 필요한 일이 있으면 각자 도와주고 그러죠. 오랜만에 만나도 오랜만에 만나는 느낌이 없어요. 어색함이 없죠.”

“우리가 소드래라는 이름으로 만났잖아요. 여기서 만나지 못했으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회원으로 만나서 인연을 맺고, 밥도 먹고, 모임도 하고, 놀러도 가면서 끈끈해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내게 무슨 일이 있을 때 달려와 줄 수 있는 나에게 소중한 인연이 되었다고 많이 느껴요. 저는 여기 태생이 아니고 객지 사람인데 객지 사람이 여기 와서 이만한 사람을 만나기도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2의 가족, 절친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소드래가 소중한요.”

“맞아요. 제가 봐도 그렇게 느껴져요. 그런 선생님들을 알게 돼서 저도 참 좋습니다. 앞으로도 모임 활동은 잘 하지 않더라도 일상에서 서로 의지하고 좋은 관계로 지내시면 좋겠어요.”

“그래요.”

더불어 산다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도 여쭙봤습니다.

“나와 너뿐만 아니라 우리라는 개념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라는 개념은 협소해요. 아는 사람만이 우리에게 해당하는데 솔직히 지나가는 어르신도 우리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고, 아저씨, 아줌마, 아이들도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한 마을이라는 개념이 옆집에 밥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다 알았던 시대였는데 지금은 마을에 대한 개념이 상실된 시대잖아요. 그런 시대에서 더불어 산다는 것은 옆집 사람이라도 챙겨주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복지관에 와서 할머니들이나 주민들과 함께 인사하고, 길 가다가 마주쳐도 인사하잖아요. 먼저 스스로없이 인사하고 안부도 묻고 그런 관계로 넓어졌죠.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커지는 것인 것 같아요.”

소드래는 2014년부터 활동한 모임입니다. 처음 선생님들을 만나 주민 모임에 대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고, 사회복지사로도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애정이 많이 가는 주민모임입니다. 이전에는 소드래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활동하고 회원으로 활동했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회원 간의 관계라기보다는 언니, 동생, 친구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웃사촌이 되어갑니다. 모임 안에서만 활동했던 관계에서 각자의 삶을 살면서 소드래라는 이름으로 묶이는 것이 신기할 때도 많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좋은 관계를 바탕으로 잘 지내시길 소망합니다.

모임 ③ 무궁화회

서울 식물원 나들이

무궁화회는 역사가 깊은 모임입니다. 이전에 장애인 사랑방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활동하고 계십니다. 올해는 월 1회 모임 외에도 휠체어 수리가 필요한 분들에게 봉사활동도 해주신다고 합니다.

모임 소개

장애인 등본 구성된 모임으로 그래서 온갖 동안 지속되어 온 모임입니다. (한삼이 칸반씩 모여 서로 대화와 목내뽀름 나누는 것이 서로간의 정만같은 가치로운 모임입니다.)

무궁화회 회장님이 직접 쓰신 모임 소개 내용

어느 날 무궁화회 회장님께 연락 왔습니다.

“권 주임. 우리 이번 주 금요일에 무궁화회 나들이 가는데 함께 갈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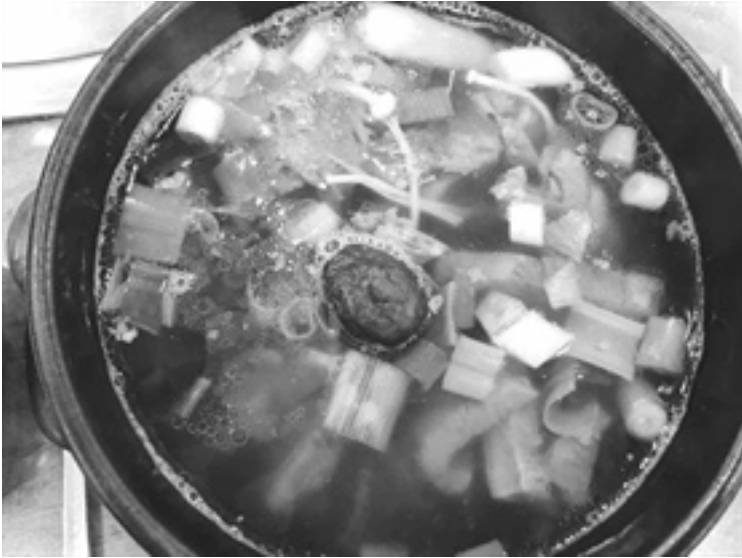
“몇 시에 가세요?”

“10시 30분쯤 갈 것 같아요.”

“제가 그때는 회의가 있어서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11시에 출발하면 안 될까요? 꼭 같이 가고 싶어요.”

“그래요. 그럼 11시에 복지관 주차장에서 봐요.”

당일이 되어 시간에 맞춰 약속장소로 갔습니다. 회원님들이 모여계셨습니다. 무궁화회 전 담당자였던 신미영 선생님이 배웅 나와주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일부 회원님들은 전동 스쿠터로 이동하셨고 그 외는 다 오셨다고 하여 출발했습니다. 이번 무궁화회에서 제 역할은 맛있게 밥 먹고, 운전해드리고 같이 구경만 하면 되었습니다. 회원님들이 계획해 놓으신 일에 참여만 하면 되었기에 부담 없이 갈 수 있었습니다.



점심으로 먹은 맛있는 갈비탕

점심으로 맛있는 갈비탕 먹었습니다. 동네에 이렇게 맛있는 맛집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식당에 턱이 있어서 전동 스쿠터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최대한 들어갈 수 있는 만큼 들어가고 그 이후에는 서로 자리까지 가는 것을 도왔습니다. 괜찮은

건지 여쭙보니 식당에 턱이 있다는 상황을 이미 알고 계셨다고 합니다. 식당에 몇 번 와서 식사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상상해봤습니다. 만약, 담당자가 식당에 턱이 있는 줄 모르고 장소를 섭외했고, 함께 가는 회원들도 몰랐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굉장히 난처했을 것 같습니다. 회원님들이 직접 준비하시고, 상황에 대해 사전에 잘 설명하셨기에 불평불만 없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음식 추가할 때도 당신들의 회비와 함께 사용하시기에 그냥 마음껏 먹으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복지관 예산으로 진행되었다면 기준이 있어서 더 못 드셨을 텐데 말입니다. 식사 장소에서도 많은 배움이 있었습니다.

식사를 다 하고 근처에 있는 서울 식물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소문으로만 들었지 처음 가봤습니다. 무궁화회 회원님들 덕분에 좋은 구경했습니다. 생각보다 잘 꾸며져 있었습니다. 전동 스쿠터로도 잘 다닐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구경하고 사진 찍었습니다.



무궁화회 나들이 모습

그런데 이날은 올해 처음으로 서울에 폭염 주의보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무척 더웠습니다. 회원님들이 힘들어하셨습니다. 앞에 정원도 구경해야 하는데 날이 더우니 집에 가자고 하셨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돌아볼 사람은 돌아보고 집에 갈 사람은 집에 가자고 하셨습니다. 놀라웠습니다. 만약 제가 준비했던 나들이였다면 계획에 차질이 생겨 속상했을 것입니다. 회원님들도 왜 더운 날 이런 곳 잡았냐며 불평불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이 직접 계획하신 나들이였기에, 누군가에게 보이거나 꼭 달성해야 하는 목표가 없었기에, 우리가 즐거우면 되었기에, 마음껏 자유롭게 진행될 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나들이 갈 때는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일정이 바뀌거나 생기는 과정들이 떠올랐습니다.



무궁화회에서 준비한 간식

무궁화회 나들이에 초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배터리가 없어서 사진 많이 못 찍어드렸지만 각자 개인 전화기로 많이들 찍으셨습니다. 손수 준비해주신 간식도 잘 먹었습니다. 다음 무궁화회 모임에도 놀러 가겠습니다.

김상진 관장

무궁화회는 기관의 여러 자조 모임 중에서 역사가 꽤 깊은 모임이지요. 다음 모임 때는 저도 함께해서 다양한 말씀을 나누고 싶네요. 응원합니다.

김은희 부장

무궁화회 회원들의 초대를 받아 회원들이 직접 준비하신 나들이에 함께 다녀왔군요. 직접 하시니 더욱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나들이네요. 역사가 오랜 무궁화회 모임 안에서 회원 간의 돈독한 관계와 다양한 활동을 응원합니다.

권대익 주임

무궁화회 나들이에 초대받았군요. 회원이 직접 준비한 나들이, 여느 나들이 처럼 편안하고 즐거워 보여요. 식당에서도 턱이 있지만 서로 도와가며 식사 하셨네요. 식사도 마음껏 하고요^^ 서울 식물원 예뻐요. 한 번도 못 가봤는데 기회 되면 가봐야겠어요.

양원석 소장

직접 주인 되어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니 담당자였다면 아찔했을 상황도 여유롭게 대처하시네요~ 오히려 담당자는 운전만 하고, 이후에는 먹고 구경하고~ ^^

무궁화회 나들이 어디로 가세요? (feat. 맛있는 국수)

“권 주임. 다음 주 월요일에 무궁화회 모임 있어요. 이날 나들이 계획도 세워요. 시간 되면 놀러 와요. 맛있는 국수도 먹고요.”

지하식당에 가니 회원님들이 계셨습니다. 직접 국수, 고명, 육수, 김치, 양념장 등등 준비해오셨습니다. 함께 나눠 먹을 과일도 준비하셨습니다. 나들이 계획을 어떻게 세울지도 기대되었지만, 국수는 어떤 맛일지

더 기대되었습니다. 회장님이 국수를 삶고 다른 분들은 삶은 국수를 찬물에 헹구고 고문님이 여러 재료를 넣고 비빔국수를 만들어주셨습니다. 집에서 싸 온 김치와 먹으니 무척 맛있었습니다.



직접 만든 새콤달콤 맛있는 비빔국수

맛있는 국수를 먹다 보니 주변 이웃분이 생각난 한 회원님은 그 자리에서 직접 초대해도 되는지 물어보고 한 분을 초대하셨습니다.

“국수 맛있네. 또 있어요?”

“육수가 끝내주네.”

“이렇게 모여서 먹으니 맛이 더 좋아요.”

다들 국수가 맛있다고 엄지 척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맛있는 국수는 처음 먹은 것 같아서 잘 먹었다고, 맛있었다고 인사 전했습니다. 국수를 다 먹을 때쯤 어디로 놀러 가면 좋을지 이야기 나누셨습니다. 회장님께서 진행 해주셨습니다.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전철 타고 춘천이나 청평 가면 어때요?”

“거긴 닭갈비가 유명하잖아.”

“그냥 여기 단지 뒤에서 삼겹살 구워 먹으면 어때요? 지난번에 샀던 고기가 입에 녹더라고.”

“수목원은 어때요? 지난번에 거기 부천인가? 거기 가니깐 좋더라고.”

“너무 멀지 않고 가까운 데면 좋겠어요.”

장소가 명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습디다. 우선 날짜만 정하고 장소는 회원님들이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신 후에 저한테 전달해주기로 했습니다.

“권 주임. 우리 사진 하나 찍어줘요.”

“네. 여기 보세요.”



무궁화회 회원님들 모습

10월 30일에 무궁화회 두 번째 나들이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재밌을 것 같습니다.

김은희 부장

국수 먹으라 초대받았군요. 사진을 보아도 먹음직스러워 보여요. 오랜만에 회장님도 뵈니 반갑네요. 가을 나들이는 어디로 장소가 정해질지 궁금해요~

양원석 소장

나들이 장소 정할 겸 만나 관계하는 자리네요. 초대해주실 만큼 선생님을 아끼시는 것 같아요. 부지런히 다니신 덕이겠지요? ^^

부천 무릉도원 수목원 나들이

무궁화회 두 번째 나들이 장소는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무릉도원 수목원이었습니다. 예전에 무궁화회 회원님들과 가본 적이 있는 곳이었습다. 그리 크지도 않고 산책하기도 적당해서 선택하셨다고 합니다.



부천 무릉도원 수목원 분수대 앞에서 회원님들 모습

“꽃 보니까 너무 좋네.”

“내가 나눠 먹으려고 약식 밥 해왔어요. 이따 나눠 먹어요.”

“날도 좋고.”

“그거 나 줘. 내가 들어줄게요.”

“지난번에 왔을 때랑 많이 바뀌었네.”

“난 생전 처음 저런 꽃이랑 나무가 있는 줄 여기 와서 처음 알았어요.”

다리 아프면 중간중간 쉬기도 하고 서로 사진도 찍어주고 휠체어도 밀어주면서 나들이 즐기셨습니다. 날씨도 더할 나위 없이 딱 좋았습니다.

“저희 점심은 어디서 먹을까요?”

“그때 먹었던 거기 매운탕 집 맛있던데. 권 주임 기억해요?”

“아. 거기요? 잠시만요. 찾아볼게요.”

장소를 검색하고 함께 식당으로 갔습니다. 가서 맛있게 매운탕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느라 사진을 찍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돌아오는 길 아쉽다고 근처 가서 드라이브하자고 제안해주셨습니다. 행주산성 근처 한 바퀴 돌고 헤어졌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람도 쐬고 좋았네. 그러~”

오늘 무궁화회 나들이는 옛 추억을 떠올리면서 함께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나들이도 나중에 떠올리면 행복했고 즐거웠던 시간으로 추억 되길 소망합니다.

양원석 소장

함께 다니며 밀어주고 이야기 나누고~ 그 관계 돈독하도록 장이 열리니 좋습니다.

사업평가

올해 활동하면서 어떠셨는지 이야기 나누기 위해 무궁화회 임원진 분들을 복지관에서 만났습니다.

“올해 무궁화회 활동은 어떠셨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이고 나들이도 다녀오고 좋았죠.”

“길 가다가 종종 이것저것 고쳐주고 계시는 회원님들 모습도 봤어요.”

“휠체어나 이런 걸 고쳐주는 재능이 있으니. 서 씨 말고도 세나 아빠도 많이 고쳐줘요. 할머니들한테 전화가 많이 와. 그럼 세나 아빠가 해줘요. 무궁화회 부회장이잖아. 그게 다 봉사죠.”

“맞아요. 잘해주신 것 같아요. 요즘 회원님들 만나면 무슨 이야기 많이 하세요?”

“다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니 밖에 나가서 바람 쐬고 싶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멀리는 못 가더라도 가까운 곳이라도 자주 가자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군요. 모임 안에서 달라진 점은 있으셨어요?”

“예전보다 모임 할 때 집에서 음식이나 먹을 거 싸 오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어요. 집에서 김치, 과일, 이런 것들 싸 와요. 옛날에는 전혀 없었죠. 복지관에서 다 해줬잖아요. 그러니 누가 들고 오겠어. 그런데 요즘은 조금이라도 집에 있는 거 나눠 먹으려고 하더라고. 그런 것을 볼 때 많이 발전되었다고 느끼지.”

“예전에는 복지관에서 지원이 많았는데 지금은 무궁화회 안에서 자체적

으로 해결하시잖아요. 그 역할들을 잘 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힘든 부분은 없으셨어요?”

“돈 문제가 제일 힘들지. 그런데 회원들이 꾸준하게 나오고 협조도 잘해주고 시간약속도 잘 지키고 그러죠. 다른 건 크게 없어요. 요만한 거 해 먹더라도 재미있게 만들어서 먹고 그래요.”

“어찌 되었던 회비로 활동은 할 수는 있는데 나들이 갈 때는 우리끼리 하기 좀 어렵더라고. 그런데 올해 복지관에서 그 부분을 도와줘서 고마웠어요. 의외로 올해 담당자 없이 해보니 스스로 해나갈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더라니깐.”

“회원님들과 관계는 어떻게 변하셨어요?”

“옛날보다는 훨씬 좋아졌지. 처음엔 뭔가 데면데면했다면 지금은 같이 하려고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부침개를 부칠 때도 내가 뒤집으면 네가 뒤집고 이런 게 생겼어. 예전에는 뒷전에 앉아서 먹기만 했지. 같이 하려고 하진 않았어.”

“그렇게 변화된 계기가 있으셨어요?”

“새로운 회원들이 몇 명 들어왔거든. 그러니 분위기가 좀 바뀐 것도 있어요. 나이 든 사람들이 하니 젊은 사람들이 안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 조금씩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분위기로 바뀌었지.”

마무리하면서 나눔에 관한 생각도 여쭙봤습니다.

“어디서 하나가 들어오면 나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나눠 먹는 거지. 그러다 보면 나한테도 더 많이 들어오더라고. 나는 김치 하나 나눠 줬는데 다른 곳에서 고맙다고 고구마, 반찬 등등 다양한 것들이 들어오잖아. 그러니 좋더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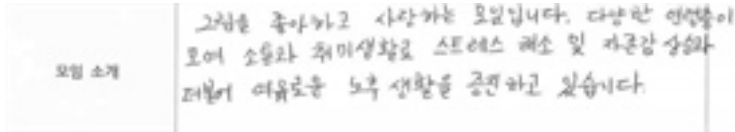
“소통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물건을 나누는 것도 좋은데 정을 나누자는 의미지. 생활이 삭막할 수 있잖아. 그런 삶 속에서 서로가 모여서 서너 명이라도 이야기 나누고 음식도 나눠 먹고 그러는 것이 나눔인 것 같아요.”

무궁화회는 현재 복지관과 관계 맺으며 활동하고 있는 모임 중 제일 오래된 모임입니다. 그만큼 서로를 잘 알고 계십니다. 오랜 세월 함께 한 만큼 앞으로도 회원님들이 좋은 관계 속에서 서로 돕고, 나누면서 무궁화회 모임 이뤄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모임 ④ 미술동아리 네잎클로버

만남

동네 사람들 모임 중에는 그림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분들의 모임도 있습니다. 바로 미술동아리 네잎클로버입니다.



미술동아리 네잎클로버 대표님이 직접 쓰신 모임 소개 내용

얼마 전, 매주 화요일마다 활동하시는 미술동아리 네잎클로버 모임에 다녀왔습니다. 오가다 만나면서 인사드리긴 했지만 활동하는 모습을 보러 간 것은 올해 처음이었습니다. 가기 전에는 ‘당연히 그림 그리고 계시겠지?’라는 생각으로 갔는데 아니었습니다. 상에 모여 앉아 집에서 직접 준비해오신 수박, 감자, 새싹 샐러드 나눠 먹고 계셨습니다.

“어서 와요. 여기 앉아서 일단 먹어요.”

“우리는 그림 그리기 전에 이렇게 먹고 시작해요.”

처음 뵙는 분들도 있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함께 둘러앉아 음식 나눠 먹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니다. 복지관 직원들도 먹으라고 수박과 감자 챙겨주셨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여러 모임을 경험하고 함께하면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바로 ‘음식은

모임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 요소 중 하나라는 점입니다. 처음에 사람과 사람이 만나다 보면 어색할 때도 있지만 함께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야기꽃이 피어납니다. 서로를 알아가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정이 쌓이게 되고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이웃이 되고 아는 사이가 되어갑니다. 미술동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술 활동만 하지 않습니다. 시작하기 전 함께 준비한 간식을 나눠 먹기도 하고 끝나고는 함께 조금씩 반찬 준비해와 점심도 나눠 드신다고 합니다.



회원님들이 준비하신 감자와 수박

미술동아리에서 그림 그릴 때 물감만 사용하실 줄 알았는데 색연필, 연필 등 다양한 재료로 그림을 그리고 계셨습니다. 직접 그리는 모습을 보니 신기했습니다.

“우와. 진짜 잘 그리세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시간 될 때마다 와요.”

“우리가 가르쳐줄게요.”

“그래야겠어요.”

그림 그리는 모습을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회원님들이 미술동아리 자랑도 해주셨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어떤 부분이 좋은지 좀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어졌습니다.



회원님들이 직접 그린 작품

“미술동아리 활동하면서 무슨 점이 제일 좋으세요?”

“내가 어디 가서 이렇게 그림을 배울 수 있겠어요. 나이 들어서 배울 데도 없는데. 이렇게 모여서 그림 그리고 활동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있고 좋아요.”

“그림이 완성되어 가는 모습을 보니 성취감도 생겨서 좋고, 다양한 사람 들하고 교류도 할 수 있어서 좋지.”

“우리 선생님 손은 금 손이야.”

“여기는 나이와 상관없이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잖 아. 그러니 너무 좋죠. 함께 음식도 나눠 먹고, 그림도 그리고 말이야.”



미술 작품을 그리고 있는 회원님들 모습

미술동아리 네잎클로버 회원님들은 매주 화요일마다 모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완성된 작품은 복지관 계단 벽면에 전시도 하고, 외부 공간을 대관하여 전시회도 여칩니다. 능력이 정말 출중한 분들이 모여계십니다. 앞으로도 좋아하는 그림 그리면서 좋은 관계 맺어가시길 소망합니다.

김상진 관장

방화동에 신윤복, 김홍도님이 사시는 듯합니다. 취미로 하나 되는 주민모임을 응원합니다.

김은희 부장

프로그램이 아닌 미술동아리 모임으로 운영되어도 잘 꾸려가시는 모습 참 좋습니다. 음식도 나누고, 정도 나누고, 이야기도 나누고 좋아하는 그림도 열심히 그리며 좋은 작품들 많이 탄생하는 것 같아요. 미술동아리 네잎클로버! 응원합니다.

김미경 과장

와~~ 역시 대단한 실력이세요. 전시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스스로 잘 운영하여 가시니 다행이고 고맙습니다.

양원석 소장

관심사에 따라 사람들 관계가 돈독해질 텐데... 음식은 대부분 사람이 갖는 보편적 관심사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음식을 나누는 것이 참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그림이라는 공통 관심사가 중첩되니 더욱 돈독해지네요~ ^^ 부지런히 다니는 선생님~ 응원 드려요~ ^^

사업평가

올해 활동하면서 어떠셨는지 이야기 나누기 위해 미술동아리 반장님을 복지관에서 만났습니다.

“요즘 미술동아리 활동은 어떠세요?”

“즐거워요. 오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건 즐거움이죠. 미술을 좋아하니깐요. 다 같은 마음일 거예요. 대화도 하고 취미도 같으니까요. 복지관에 오면 추울 때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그러니 재미가 들린 거죠. 오면 재미있어요. 도시락도 싸 와서 나눠 먹고, 복지관에서 이런 장소를 제공해준 것이 정말 좋아요.”

“작년까지는 미술동아리에 담당 직원이 있었잖아요. 올해부터는 자체적으로 강사님과 회원님들 중심으로 움직이면서 어떠셨는지도 궁금해요.”

“어려웠던 부분은 제가 반장이잖아요. 다달이 회비를 걷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원래는 회비를 내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스스로 운영하면서 내기 시작했죠. 그거 말고는 크게 어려운 건 없네요. 좋은 점은 이렇게 계속 나와서 미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서로 공유하고 대화하고 즐기는 건 여전히 좋아요.”

“즐겁게 활동하고 계신 것이 느껴져요. 회원님들 간의 관계는 어떻게 변화되셨는지도 이야기해주세요.”

“되게 오래된 사람들이라, 각자 성격과 성향들을 잘 알아요. 서로를 잘 알다 보니 이해하고 배려하죠. 연락도 자주 하고요.”

“앞으로도 좋은 관계 맺으며 활동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미술 작품을 한 번도 완성해본 경험이 없는데요. 작품 완성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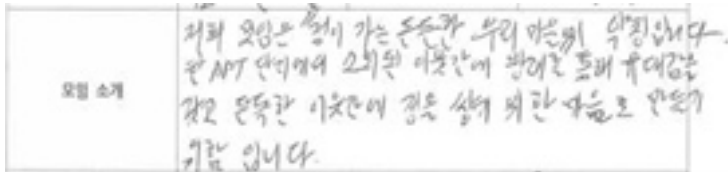
“좋죠. 내가 했나 싶기도 하고, 믿어지지도 않아요. 멋있죠. 저는 인물화를 많이 그려요. 손녀, 아들 다 그려줬어요. 받는 사람들도 너무 감격해 했어요. 우리 아들한테 예수님 그려줬는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럴 때 보람을 많이 느껴요.”

미술동아리 반장님과 이외에도 많은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눈 건 처음이었습니다. 반장님이 가지고 계신 어려움과 생각에 관해 알 수 있었습니다. 복지관에서 어떤 부분을 좀 더 거들어 드리면 좋을지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반장님께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미술동아리 회원님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즐겁게 활동하시길 소망합니다.

모임 ⑤ 정가든

상반기 가든파티

정가든은 정이 가는 든든한 우리 마을에 약칭으로 복지관에서 오랜 세월 함께 활동했던 모임입니다. 동네 사람들 지원서에는 모임 구성원들의 이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의 방식으로 이웃을 돌보고 함께 나누는 모임이라고 소개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도 지속해서 해온 일이지만 동네 사람들 지원 예산이 활동에 마중물 역할을 하여 이웃과 정을 나누고 즐겁게 활동하고 싶어 신청하셨다고 합니다.



정가든 회장이 직접 쓰신 모임 소개 내용

6월 26일 수요일 정가든에서 가든파티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전부터 정가든 한 번 가야지, 가야지 했던 것을 드디어 가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회장과 연락했고, 흔쾌히 와도 좋다는 이야기에 설레는 마음으로 가든파티에 갔습니다. 이전 정가든 가든파티는 사회복지사와 함께 일정을 잡고 임원진들과 함께 다과와 물품을 사러 가는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담당 사회복지사가 없어도 정가든 임원진 분들을 중심으로 직접 가든파티를 준비하십니다. 본인들의 회비와 예산으로 먹고 싶

은 음식, 필요한 물품을 직접 사고, 함께 활동할 거리도 준비하십니다. 장소도 당신들이 필요한 곳을 찾아 직접 복지관에 예약하십니다. 이런 변화들이 향후 정가든이 일상 속에서 정을 나누며 지속해서 활동할 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정가든 가든파티에서 준비한 음식

가든파티에 많은 분이 오셨습니다.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닭강정, 과일, 떡 등을 드시면서 담소 나누고 계셨습니다. 처음 만나는 분들도 있고 이전부터 얼굴을 알던 분들도 계셨습니다. 회장님이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 이후에는 제가 여기에 왜 왔는지, 누구인지, 동네

사람들 사업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회원님들이 박수로 반갑게 맞이해주셨습니다. 오늘 무슨 활동하는지 여쭙봤습니다. 이렇게 회원들하고 먹고 이야기 나누고 노래 부른다고 하셨습니다. 정겨웠습니다. 맛있는 음식 입에 계속 넣어주셨습니다. 인정이 넘쳤습니다. 다른 일정이 있어서 오래 있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노래자랑 시간에 꼭 참여하고 싶었는데 다음을 기약해야 했습니다. 다음 가든파티 때 노래 뽐내겠다 약속하고 나왔습니다. 사무실에 돌아오니 구성진 노랫소리가 들렸습니다.



정가든 가든파티 모습

정가든에 가면 늘 사람이 많습니다. 함께 차 마시고, 이야기 나눕니다. 일상을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다. 늘 마음이 따뜻해지는 모임입니다. 회로애락이 있습니다. 정가든 가든파티에 초대되어 행복했습니다. 앞으로 동네 사람들로 활동하는 모임 몇 곳을 더 찾아가 인사드릴 예정입니다. 거기엔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지 기대됩니다.

김상진 관장

정이 가는 든든한 우리 마을 「정가든」이 있어서 마을이 훈훈해집니다. 고맙습니다.

김은희 부장

이웃 간에 관심과 애정으로 서로 정을 나누고 오가며 들러 담소 나누는 정가든. 3층에 정가든이 있어서 이 지역 사시는 분들은 항상 든든하실 거예요. 고맙습니다.

김미경 과장

정가든은 누구나 문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죠. 서로 아픔을 보듬어 주고 도움을 주고받는 곳이죠. 바쁜 와중에도 동네 사람들 모임마다 찾아다니며 응원하는 권민지 주임님 고마워요~

양원석 소장

정이 가득한 가든파티. 이름도 정가든, 활동도 정이 가득한 가든파티. 스스로 준비하시고 펼쳐주시는 모습 잘 거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

김지수 사회복지사 (전 방화11 동료)

보고 싶고 궁금하던 정가든 이야기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좋네요. ^^ 권민지 주임님 덕분에 간만에 정가든 회원님들 얼굴도 살짝살짝 볼 수 있어서 혼자 반가웠어요. 저도 기회 되면 정가든 한번 오래간만에 놀러 가고 싶네요~

정가든과 이웃이 함께한 추석 잔치

올해 추석 잔치는 방화2동 주민센터와 연계해서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추석 잔치를 궁리하기 위해 복지관과 주민센터가 함께 주민을 만나 묻고 의논하고 부탁합니다. 정가든 회원님들과 추석 잔치를 준비하기 위해 김미경 과장님, 원종배 선생님, 방화2동 주민센터 김병완 계장님과 함께 만나러 갔습니다. 추석 잔치를 하는 이유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면 좋을지 이야기 나눴습니다. 김병완 계장님과 김미경 과장님께서 잘 설명해주셨습니다. 정가든에서 준비할 수 있는 것, 주민센터와 복지관에서 준비할 것에 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첫 만남 이후에 추석 잔치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다시 만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눴습니다. 많은 분이 함께하면 좋으나 미리 준비할 재료의 양이 있기에 초대장을 만들어서 이웃분들에게 나눠드리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그 자리에서 바로 방울이 님이 초대장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다 만든 초대장은 저에게 가져다주면 스캔해서 출력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정가든 회원 방울이 님이 회원들과 의논하여 직접 만든 초대장

송편을 담은 용기에 붙일 메시지도 회원님들이 직접 작성해주셨습니다.
작성한 내용을 라벨지에 옮겨 당일에 출력해서 가기로 했습니다.

<p>즐거운 추석을 재미있게 보내세요 정가든 마음 담고 있는 송머리가 송편을 만드셨어요. 맛있게 꼭 드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p> <p>즐거움 만끽하시고. 가정에 행복하세요. 정가든 오뎅이팀</p> <p>즐거움 추석 보내세요. 건강하세요.</p>	<p>행복 가득 한 ①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p> <p>-방울이-</p> <p>즐거운 추석을 맞이하여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작은 정성은 준비 하였어요. 맛있게 갑수세요.</p> <p>-다혜-</p> <p>즐거움 추석 보내세요. 건강하세요.</p>
---	--

정가든 일동

정가든 회원들이 이웃에게 전하고 싶은 추석 인사 내용

정가든 추석 잔치를 준비하면서 1통과 2통에서 송편 잔치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임원진 분들과 어떻게 진행되는지 미리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통과 2통에서 추석 잔치한다고 해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함께 보러 가시면 어때요?”

“그래요. 좋아요.”

정가든 채송화 님, 미용사 님, 꽃순이 님과 함께 놀러 갔습니다. 오뎅이 님은 일정이 있어서 함께 가지 못했습니다. 아쉬웠습니다. 1통과 2통에서 진행되는 추석 잔치에 가니 많은 분이 둘러앉아서 송편 빚고 계셨습니다. 반갑게 인사 나눴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한 것들은 1통 통장님께 여쭙봤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직접 빚은 송편도 맛보고 차도

마셨습니다. 무척 맛이 좋았습니다. 1통에서 진행되는 추석 잔치에 참여하시니 정가든 추석 잔치도 잘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지신 것 같았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잘해야지.”



1·2통 추석 잔치 모습

추석 잔치 당일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9월 9일 월요일에 진행하기로 했으나 사정이 생겨 9월 10일 화요일로 변경하여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초대장은 수정해서 정가든 회원님들이 이웃들에게 나눠줬다고 하셨습니다. 정가든에서 시원한 식혜 8통 준비해주셨습니다. 송편 찌서 먹을 때 나눠 드신다고 했습니다. 그 외 필요한 물건들도 가져오셨습니다. 버너는 풀꽃향기 주민모임에서 빌리셨다고 하셨습니다. 초대장을 받으신 이웃분들이 한두 분씩 오셨습니다. 30명이 넘는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정가든 회원들도 있긴 한데, 거의 7~8명이고 대부분 아닌 사람들이 더 많이 왔어. 우리가 초대했거든.”

정답게 둘러앉아서 송편 빚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인 만큼 다양한 모양의 송편이 빚어졌습니다. 각자 만든 송편 보면서 이야기 나누니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방화2동 주민센터 직원들과 복지관 직원들도 함께했습니다. 많은 분이 함께하니 더 풍성하고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빚은 송편은 자리에서 나눠 먹고, 집에 가져가고, 오지 못한 분들에게 나눠 드렸습니다.



정가든과 이웃들이 함께한 추석 잔치 모습

“추석 잔치 함께 준비하고 참여하면서 어떠셨어요?”

“화목하게 잘 보냈지 뭐~ 많이들 와서 송편도 예쁘게 만들고, 나눠 먹고. 오손도손 모여서 만들고 좋았지.”

“다음에도 또 이런 잔치 하면 또 하고 싶어. 또 해야지.”

“이웃들이 송편도 맛있고, 잘 만들었다고 이야기 전해줬어요.”

“송편도 너무 달지 않고 여럿이 모여서 먹어서 그런가 마음도 편안하고, 맛도 있고 좋았죠.”

“아들도 함께 왔었는데 주변에서 잘 만든다고 하니 기분 좋아했어요. 다음에 또 와서 만들고 싶다고 하네요 와서 너무 좋았다고 이야기했어요”

“참여해서 좋았어요. 여럿이 모여서 좋았고, 어르신들이 많이 오셔서 도와줘서 고마웠고요. 이웃들한테도 나눠 줬는데 잘 먹겠다고, 고맙다고 이야기해줬어요.”

“맛있는 송편 나도 좀 주지... 이러면서 주변에서 나는 왜 안 주냐고 했던 곳도 있었어요. 더 많이 만들면 좋았는데 그러지 못해 아쉬웠어요”

“집에서 송편 다시 찌서 나눠줬어요. 다들 좋아했어.”

많은 분이 오셔서 생각보다 일찍 끝났습니다. 정가든 임원진, 회원들이 이웃들과 함께 추석 잔치 직접 준비, 진행, 정리하셨습니다. 방화2동 주민센터와 복지관은 이웃들과 함께 정겹게 추석 잔치하실 수 있도록 거들어 드렸습니다. 한 번 해보니 다음에 또 할 수 있겠다 하셨습니다. 추석 잔치에 함께 해준 정가든 임원진과 회원, 초대받은 이웃들, 방화2동 주민센터 동장님과 직원들, 복지관 관·부장님, 직원들에게 고맙습니다.



정가든과 이웃들이 함께한 추석 잔치 모습

김상진 관장

주민과 복지관, 그리고 주민센터가 함께 하니 더 의미 있는 자리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덕분에 추석을 행복하게 보내셨겠지요?

박은하 회계 주임

어르신들과 함께 송편 빚으며 솜씨 자랑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일가 친척 미리 만나 명절 잔치 준비하는 기분으로 만남이 반갑고 즐거웠습니다. 송편 반죽이 마르지 않도록 물 적신 행주를 덮어놓는 지혜도 배웠지요.

양원석 소장

‘여럿이 모여서 먹어서 그런가 마음도 편안하고, 맛도 있고’ 계다가 여기저기에서 칭찬받으니 얼마나 좋으실까요. 별것 아닌 것 같으나, 이런 일상으로 사회사업이 풀어지니 더욱 귀합니다. 평상시 관계망이 이렇게 일회적으로 확장되고, 확장된 관계망이 다시 평상시 관계망을 돈독하게 하고. 선순환이 보입니다. ^^

하반기 가든파티

가든파티가 진행되기 며칠 전에 정가든 오뚝이 회장님이 사무실에 오셨 습니다.

“이번에 가든파티 물품 구입하러 그 박선하 씨랑 같이 가기로 했어요.”

“방화2동 주민센터 주무관님요?”

“우리가 나눔 이웃 활동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가든파티에 함께 하기로 했지.”

“네. 잘 다녀오세요. 복지관에서는 지하강당 사용하실 수 있게 준비해드리면 되죠?”

“그럼요. 나갔다 올게요.”

주민들도 자연스럽게 주민센터와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합니다. 당신들이 잘할 수 있는 활동으로 방화2동을 위해 애써주고 계시는 모습을 보니 감사함이 느껴졌습니다.



정가든 가든파티를 준비하고 있는 임원진 모습

가든파티 당일이 되었습니다. 일찍부터 임원진 분들이 오셔서 분주하게 움직이셨습니다. 정가든 회장의 인사로 가든파티가 진행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사회복지사가 진행했다면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색하긴 하지만 당신들의 모임이기에 직접 진행하고 활동합니다. 작은 부분이라 생각될 수도 있지만 모임 활동을 임원진들이 의논하여 결정하고 회원들과 함께 하는 과정들이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든파티에서 회원들과 인사하는 회장님 모습

회원들이 모여 인사하고 준비한 음식 나눠 먹으며 이야기 나눴습니다. 많은 분이 오지 못해 오뎅이 회장이 아쉬워하셨습니다.

“원래는 진짜 많이 모이는데 오늘따라 많이 안 와서 서운하네. 음식도 많이 준비했는데.”

가든파티에 참여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래가 있고 맛있는 음식이 있고 서로 얼굴 보며 이야기 나눌 사람이 있다는 것이 참 좋다. 소박하게 일상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것이 인생 아닐까?’ 이런 감정을 많은 분이 느낄 수 있도록 관계를 잘 주선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중간에 방화2동 주민센터 김병완 계장님도 오셔서 인사하셨습니다. 그 동안 정가든에서 잘 활동해 주신 이야기 전해주면서 감사 인사 전하셨습니다.

습니다. 추석 잔치 이야기도 곁들어서 이야기해주셨습니다. 복지관뿐만 아니라 주민센터에서도 정가든이 잘해온 일들 알아주고 칭찬 지지 보내 주니 더 좋았습니다. 회원님들이 추석 잔치 이야기 들으시고 오늘도 다음에 또 하겠다, 참여하고 싶다고 이야기해주셨습니다. 기대되었습니다. 원종배 선생님이 준비한 추석 잔치 사진도 전해드렸습니다. 못 오신 분들에게는 임원진 분들이 따로 전해드리기로 했습니다. 모임 내내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니다. 서로를 챙기고 신나게 어울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고맙네. 잘 놀다 가네.”

“고생했어요. 이렇게 다 모이니 즐겁네.”

“다음에 또 봐요~”

“우리 회장님 최고!”

인사하고 가셨습니다. 다음 가든파티는 12월에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때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정가든 가든파티 모습

양원석 소장

정가든이라 가든파티인가 보네요~ ^^ 주변에 지지하고 응원하는 분들이 많이 와주시니 더욱 뿌듯하시겠어요. 스스로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는 가든파티이니 더욱 그러실 듯합니다. 잘 응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업평가

올해 활동하면서 어떠셨는지 이야기 나누기 위해 정가든 회장님을 복지관에서 만났습니다.

“정가든 자랑 하나만 해주세요.”

“우리 정가든의 자랑은 임원진들이 진짜 싫다, 힘들다는 이야기 없이 다 잘해줘요. 총무 채송화는 진짜 총무 짓을 해요. 커피 떨어지면 커피사 오고, 집에서 김치나 밥도 가져와 나눠 먹고 그래요. 열정이 넘쳐요. 꽃순이는 정가든이 직장이라고 말하면서 오고 있어요. 문 열고, 닫고 그러고 있죠. 우리 임원진들이 기쁨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서로 협조하며 일하니 보람도 있고요.”

“맞아요. 임원분들이 애쓰는 모습이 많이 보여요. 잘해주고 계시고요. 이렇게 활동하면서 더불어 산다는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셨는지도 궁금해요.”

“우리가 정가든 활동도 하지만 이웃 돌보미 활동도 하고 있잖아요. 요즘 사회를 보거나 뉴스를 볼 때 자살사건, 세 모녀 사건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손 놓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복지관에서도 밖으로 나가듯이 정가든도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해요. 얼마 전에는 김 80개 가지고 임원들이랑 함께 혼자 사는 중장년 남자들이 찾아가 안부확인도 했어요. 그 사람들 만나면서 많이 외로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 활동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모르던 사람들을 알게 되고 처절하게 아픈 사람들,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들을 알게 되었어요. 이렇게 서로 찾아다니고 관심 가지면서 사는 게 더불어 사는 거 아닐까?”

“힘들진 않으세요?”

“육체적으로 힘들긴 하죠. 나도 아프거든. 그래도 어찌겠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니 하는 거죠.”

“그 안에서 얻는 보람이 크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을 발견해서 김을 주거나 도움을 줄 때 그분들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마음이 위로되잖아요. 그리고 복지관이나 동사무소에서 계속 우리 정가든에 찾아와 도와달라고 해요. 그걸 보고 아니 우릴 왜 이렇게 찾냐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필요하구나. 정가든이 필요한 존재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모저모로 보면 그래요. 그래서 좋아요. 보람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온종일 뿔 하러 힘들게 하냐고 그러기도 하는데 우리는 남을 도와주고 하는 것이 보람이고 기쁨이라고 이야기해요.”

“주변에서 그렇게 챙겨주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잘 살아갈 힘을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가든이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올 한 해 정가든 활동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있으세요?”

“우리가 추석 때 송편 만들기 했잖아요. 그게 기억에 남아요. 그때 계기로 정가든 회원뿐만 아니라 다른 이웃들도 초대해서 하는 활동으로 넓어진 것 같아요.”

정가든 회장님과 여러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가든이 우리 동네에서 사랑방 같은 공간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회원들도 오지만 누구나 올 수 있게 열려 있고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며 각자 잘할 수 있는 역할로 관계 맺으며 잘 지내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도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안부를 전하며 잘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모임 ⑥ 요리동아리 삼시세끼

오늘은 무슨 요리 만드세요?

요리동아리 삼시세끼는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이웃들이 모여 함께 음식을 만들고 나눠 먹는 동아리입니다. 마을공동체 효도밥상 선생님들과 연계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모임 소개	구성원 인원중 90% 이상이 혼자 사는 어르신분에서 건강한 식생활을 배워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더불어 이웃과 함께 요리비법을 공유하여 배운 요리들 함께 만들어 시식하며 친목을 다진다.
-------	---

요리동아리 대표님과 총무님이 작성해주신 모임 소개 내용

7월 둘째 주 토요일에 요리동아리가 모인다고 해서 미리 연락드리고 찾아갔습니다. 도착해보니 회장님이 자리에 앉아서 혼자 양파 까고 계셨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지금 혼자 양파 까고 계신 거예요?”

“양도 얼마 안 되고, 미리 까 놓으면 회원들도 편하고 하네요.”

“그렇군요.”

“아직 다들 안 오셨나 봐요?”

“이제 조금씩 올 거예요.”

오지 않은 회원님들께는 일일이 전화하면서 챙기셨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사회복지사가 전화하거나 오지 않는 마음에 애뒀겠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들의 일기기에 모임을 스스로 챙기십니다. 출석부도 사회복지사가 챙기지 않습니다. 직접 노트 준비해서 수기로 확인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여름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면 요리하신다고 했습니다. 채소와 고기, 참깨 드레싱을 섞어서 만드는 요리라고 했습니다. 각자 앞에 놓인 재료 다듬으며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 나눴습니다. 저는 그냥 옆에 앉아서 재료 다듬으며 이야기하는 회원님들의 소리에만 귀 기울였습니다.



요리동아리 삼시세끼 활동 모습

“간 좀 봐봐. 어때?”

“조금 싱거운 것 같아.”

“소금 더 넣을까?”

고기 볶으면서는 서로 간 봐주며 입맛에 맞는 요리 만드셨습니다. 이야기 나누다 보니 어느새 요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상상해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음식 재료 준비부터 구입, 당일 세팅, 회원 연락 등 사회복지사가 해야 할 일들이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요리동아리 회원님들이 직접 모든 일을 다 하고 계십니다. 당신들의 일이고, 당신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저 옆에 앉아서 회원님들 재료 다듬는 모습 보고, 이야기 나누고 주는 음식 간 보기만 했습니다. 정겨웠습니다. 토요일에 시간 내어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완성된 맛있는 요리

요리동아리에 오면서 어떤 부분이 좋은지 궁금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얼굴 보고 이야기 나누니 좋은 거죠.”

“여기서 배운 요리 집에서 가족들한테 해줄 때도 있어요.”

“양이 너무 많아 혼자 다 못 먹어요. 집에 있는 식구들하고 나눠 먹거나

저녁때 또 먹기도 해요.”

“도움 되는 활동을 하니 좋아요.”

“효도밥상 선생님들께 고마워요.”

“이렇게 같이 음식 만들어서 나눠 먹으니 혼자 먹는 것보단 좋죠.”

활동하는 중간중간. 집에 돌아가는 길에도 서로 챙기셨습니다.

“할아버지. 고기에서 비계 조금 떼어냈어요. 개가 좋아한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이거 가져가요. 꼭 삶아서 줘야 해요. 안 그럼 큰일 나요.”

요리동아리 삼시세끼 활동하는 모습 보며 정겹다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앞으로도 이웃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 나눠 먹으며 즐겁게 활동하시길 응원합니다.

김상진 관장

얼마 전에 아내가 제게 ‘요리하는 남자가 멋져 보이더라고요. 당신의 요리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라고 하더군요. 저도 모임에 나가서 배워볼까요?

김은희 부장

요리동아리는 음식을 함께 만들어 나눠 먹으며 이야기도 쌓고, 정도 쌓아갑니다.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서로를 돕고 배려하는 모습!! 삶으로 일상으로 함께 누리니 사람 사는 것 같습니다.

김미경 과장

권민지 주임님 말대로 정겨워요. 사회복지사가 돕지 않으면 안 될 줄 알았는데 그런 일은 애초 없었나 봅니다. 좋아서 하는 활동이시니 모이시게 되고, 자연스레 역할 찾아서 하시니 서로 고맙다 인사 나누시고 챙기시는 모습이에요.

모이실 수 있도록 조금만 거들면 알아서 잘하실 수 있는 일들이 많겠어요. 동네 사람들 시작하며 걱정이 많았는데 이렇게 다들 스스로 잘하시는 모습 보니 좋습니다.

양원석 소장

당사자를 주체로 세워 당신의 일상이 되도록 도우니, 무엇보다 사회사업가가 평안하네요. 쫓기지 않는 사회사업. 맞아요~ 이렇게 당사자를 주체로 세우는 것이야말로 사회사업가의 바른 태도이자 구별 점이겠지요? ^^

오늘은 밥상 친구 Day

요리동아리 삼시세끼에서는 무명가수 공연과 그동안 갈고닦은 요리실력으로 음식을 준비하여 판매하는 주민잔치 한마당을 기획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전체적인 기획은 효도 밥상 선생님들과 함께하신다고 했습니다. 복지관에서는 어떤 부분을 도우면 좋을지 여쭙봤습니다.

“노래방을 써야 할 것 같아요. 그거랑 음식 판매할 장소가 필요해요.”

“지하강당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일엔 노래방 사용하실 수 있게 준비해 놓을게요. 음식 판매 장소는 생각해보셨어요?”

“글쎄요. 지하에서 하면 어때요? 공연도 지하에서 하니깐요.”

“판매가 목적이면 주민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곳이어야 할 것 같은데 지하는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보통 1층 로비에서 자주 해요. 1층 로비는 어떠세요?”

“회원들과 함께 이야기 해봐야겠어요. 다시 의논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 말고 또 다른 건 없을까요?”

“홍보지를 만들어 줄 수 있을까요?”

“네. 내용을 보내주시면 그 내용 토대로 만들어드릴게요. 판매 수익금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판매 수익금은 이웃과 함께하는 요리동아리 활동비로 사용하려고 해요. 도와줘서 고마워요. 다시 연락할게요.”

요리동아리 회장님과 이야기를 나눈 후 헤어졌습니다. 처음이라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회원들과 잘 이야기한 후 효도 밥상 선생님들 도움받아 잘 준비해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이후에도 요리동아리 회장님, 총무님, 효도 밥상 대표님과 꾸준히 연락하여 행사 준비를 도왔습니다.



부침개 재료 준비하는 요리동아리 삼시세끼 회원 모습

당일이 되었습니다. 1층에서는 부침개 재료를 준비하고 지하에서는 컵밥 재료와 공연 준비를 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초대하신 가수도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준비가 예상 시간보다 늦어지고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리허설 중에 잘 나온 CD기가 본 공연에서는 갑자기

나오지 않아 차질이 생기기도 했고, 음식 준비가 늦게 되어 판매가 늦어 지기도 했습니다. 처음 손발을 맞춰서 진행하는 행사이다 보니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당신들이 직접 기획하고 준비한 행사니 불평불만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할 때 더 잘해볼 수 있겠다고 하면서 좋은 경험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끝까지 합심하여 잘 마무리하셨습니다.



뒷정리하고 계신 회장님 모습

놀러 오신 주민들도 음식 맛있다고 하셨습니다. 컵밥은 이따 집에서 저녁으로 먹겠다고 많이들 사가셨습니다. 따끈한 부침개도 맛있다고 하셨습니다. 공연도 장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찍 끝났지만 노래도 잘 부르고 오랜만에 즐거웠다고 가시면서 이야기 들려주셨습니다. 처음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잘 해주신 요리동아리 삼시세끼 회원님들과 그 곁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신 효도 밥상 선생님들께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이번에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더 잘하실 거라 믿습니다.

사업평가

올해 활동하면서 어떠셨는지 이야기 나누기 위해 요리동아리 회장님을 복지관에서 만났습니다.

“요리동아리 활동 요즘 어떠세요?”

“재미있어요. 사람들도 잘 따라주고 그래서 좋아요. 앞으로도 서로 이야기 나누면서 즐겁게 활동할 사람들을 추가로 모집해보려고 해요.”

“즐겁게 활동하신다니 다행입니다. 저도 지난번에 갔을 때 느꼈어요. 옛날에는 요리동아리에 담당 사회복지사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담당자 없이 자체적으로 효도 밥상과 함께하시는데 이렇게 바뀌니 어떠신지도 궁금해요.”

“예전에는 장보기부터 해서 담당자가 거의 다 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시장보고 그래요. 좀 싸고 괜찮은 것들 골라서 사려고 해요. 할인되는 것도 보고요. 우리가 해보니깐 괜찮더라고. 서로 도우면서 하고 사람들도 잘 따라주고 그러니깐.”

“해볼 만하다니 다행이네요. 회원님들 간의 관계는 어떠세요?”

“옛날보다 분위기는 많이 좋아졌어요. 옛날에는 막 서로 따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야기도 많고 그랬어요.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도 않고요. 그런데 지금은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니 회원들 간의 불신도 안 생기고 관계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요리동아리 활동하면서 가장 좋은 점은 뭐가요?”

“다른 단지에 사는 사람들도 요리동아리에 활동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오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는 방화동

전체로 홍보하고 싶어요. 이렇게 만나서 요리하고 음식 나눠 먹는 것이 좋다고 많이들 이야기해요. 서로 어떤 음식을 만들어 볼까, 뭘 해 먹어볼까 이야기도 하고 집에서 못하는 음식들을 여기서 만들어 보잖아요. 그럼 배워서 집에서 또 해 먹고. 그런 과정들이 재밌나 봐요. 그래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귀한 시간 내어 요리동아리에 관한 회장님의 생각을 잘 이야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남들과 더불어 살고 싶고, 요리동아리 활동이 지역에 선한 영향을 미치길 원하는 회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요리를 구실로 다양한 분들이 서로 모여 정답게 활동하시길 소망합니다.

모임 ⑦ 천연과 친해져

만남

천연과 친해져는 친환경을 위해 천연제품을 이웃들과 함께 만들고, 나누는 모임입니다. 핸드메이드 동아리에서 활동하면서 좀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하신 분들이 모여서 별도로 활동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전부터 가야지, 가야지 했던 길 얼마 전에 드디어 다녀왔습니다.

모임 소개

저희는 복지관의 도움으로 천연제품을 접하게 되어 자격증 까지 취득 하면서 꾸준히 한 달에 두 번 재능 나눔을 실천해오고 있는 모임입니다. 저희의 재능 나눔을 통해 많은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더불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은 소망을 품고 있는 모임입니다.

천연과 친해져 대표님이 작성하신 모임 소개 내용

예전부터 활동하셨던 몇몇 분들은 잘 알고 있었으나 처음 뵙는 분들도 있어서 인사를 나눈 뒤 간단하게 제 소개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복지관에서 근무하는 권민지라고 합니다. 동네 사람들 담당하고 있어요. 어떻게 활동하는지 궁금해서 놀러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활동하고 계시는지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저희는 직접 공부하고 배운 내용을 토대로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활동하고 있어요.”

“우리 제품은 우리가 직접 공부하면서 만든 제품이에요. 임상실험도

스스로 해 봤죠.”

만드는 활동을 지켜보면서 그램 수에 따라 무엇이 달라질까 궁금했습니다. 그램 차이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기도 하고, 부작용이 생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척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천연제품을 만들고 있는 모습

“저희만의 특별한 레시피가 있어요. 외부로 유출하면 안 돼요. 우리가 공부해서 얻은 결과거든요.”

천연과 친해져 활동에 오신 분들에게 어떤 부분이 좋아서 계속 사용하시거나 오게 되었는지 여쭙봤습니다.

“직접 내 손으로 만드니 재미있어요. 효과도 좋고요.”

“필요하면 천연제품 사용하기 전과 후 사진도 줄게요. 한 번 봐주세요.”

“직접 만드는 제품이니깐. 확실히 좋아요. 저희도 좋은데 아이들이 더 좋다고 해요. 그래서 더 사용하는 것 같아요.”

“직접 만드니깐 믿을 수 있죠.”

“천연제품은 삶의 지혜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수다 떨면서 만드니 시간도 금방 가고 재밌어요. 끝나고 밥도 먹으러 가고. 사람도 사귀고.”

자리에 앉아서 많은 이야기 나눴습니다. 천연제품 만들기에 대한 회원님들의 자부심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직접 만들기 위해 참여하는 분들도 있지만 바쁘신 분들은 주문도 하신다고 합니다. 사용 후기도 공유하면서 서로 소통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 모임을 다니면서 얻는 유익이 큼니다. 새로운 주민들도 알게 되고, 주민들 간의 관계도 보입니다. 어떤 활동을 하는지도 알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지혜와 상식을 얻기도 하고, 사회복지사로서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동네 사람들로 활동하는 분들 덕분에 많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직 만나 뵙지 못한 곳도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부지런히 다니며 활동하는 모습 응원하고 싶습니다.

김상진 관장

새로운 회원도 많이 오셨군요. 저도 사용해 봤는데 좋아요. 함께 해주시는 선생님들 고맙습니다.

김은희 부장

천연과 친해져서 가진 재능으로 꾸준히 주민과 소통하며 나눔 활동해 주시는 이웃이지요. 저도 덕분에 좋은 제품 접해보니까. 이웃에 좋은 제품 많이 퍼

트려주세요~ 천연과 친해져 활동 응원합니다!! 권민지 주임! 동네 사람들 모
니터링 활동 기록으로 남겨주어 홈페이지에서 접하니 반갑고 고맙습니다.

김미경 과장

천연과 친해져 다녀 오셨네요. 처음 보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인기가 높은
천연과 친해져 모임. 선생님들 늘 고맙습니다!!

양원석 소장

천연제품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화장품류 일까요? 궁금해요~
만드는 과정은 완전 연구소 저리 가라네요~ ^^ 읽으면서 뿌듯함이 느껴졌
습니다. 회원도 선생님도~ ^^



천연과 친해져 활동 모습

사업평가

올해 활동하면서 어떠셨는지 이야기 나누기 위해 천연과 친해져 회장님을 복지관에서 만났습니다.

“회장님은 천연제품 만들기를 구실로 재능 나눔을 하고 계시잖아요. 나눔이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생각이 바뀌게 되신 계기가 있으신지 궁금해요.”

“마음을 서로 나누면서 따뜻해진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나눔의 생각도 많이 바뀌긴 했죠. 제가 집에서 아이들만 키웠을 때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계만 나눠 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나눔이라는 것은 누구나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작은 거라도, 마음이라도 누구나 준비가 되어있다면 나눌 수 있어요. 그게 나눔인 것 같아요. 나눔을 통해서 누구나 행복해지는 게 나눔 아닐까요?”

“생각이 많이 바뀌셨네요. 그렇다면 더불어 산다는 의미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세상에 편견을 없애면서 다 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살아가는 것이 더불어 사는 세상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천연과 친해져 같은 경우엔 매번 오시는 분도 있고 안 오는 분도 있고 그래요. 전혀 몰랐던 분들도 오시구요. 그렇게 만난 분들이 서로를 위하고 생각하는 모습을 봐요. 얼마 전 어떤 분이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찾아가신 분도 있더라고요. 힘내라고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했어요. 굳이 안에서 만났기에 가지 않아도 되지 않냐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얼굴 몇 번 본 게 다지만 그 안에서 서로의 마음이 오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게 정말 더불어 사는 삶 아닐까 생각했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사시면 좋겠어요. 그 안에서 회원님들 간의 관계도 변화되셨나요?”

“그럼요. 예전에 지원받기 전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다양하진 않았어요. 알고 있는 선에서만 재능 나눔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지원을 받으면서 재료비 부담을 덜 느끼게 되다 보니 새로운 걸 많이 도전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오시는 분들에게 새로운 걸 함께 해보자고 제안해요. 그러다 보니 그분들이 웃음이 많이 느셨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실패하면 그렇게 많이들 웃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면서 편한 사이가 되었어요. 언니, 동생 같은 관계로 발전되었죠. 가족 같은 느낌도 들고 늘 오시는 분들과는 서슴없이 친해진 관계가 되었어요.”

“그렇군요. 재미있게 지내시는 것 같아요. 천연과 친해져도 이전에는 담당 사회복지사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잖아요. 사회복지사가 없을 때 더 좋은 점이 있나요?”

“좋은 점은 자립심이 높아진 느낌이 들어요. 선생님이 계시면 늘 의지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 상황이 생기니 내가 판단해야지 누구의 도움은 없다는 생각이 강해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스스로 키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천연과 친해져 자랑 한 가지만 해주세요.”

“저희가 활동하는 방에 오면 모든 분이 다 행복해하세요. 웃음이 끊이지 않아요. 뭐가 그렇게 즐거운가 봐요. 아로마 오일 향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시면 오는 분마다 처음 한마디씩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방은 향기가 굉장히 좋네요. 하면서 들어오세요. 아로마 오일 향 때문에 심신 안정이 되나 봐요. 누구에게나 향기로 힐링을 줄 수 있는 모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에겐 조금 진하긴 한데. 향이 엄청 좋더라고요.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세요?”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이 방법대로 잘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 커요. 저희가 하는 활동을 복지관 엘리베이터에 붙이거나 도서관 밴드에 올리잖아요. 알고 지내는 엄마들한테도 홍보하고요. 그런데 요즘은 주변에서 이사를 많이 가 아쉽죠. 내년에는 새로운 주민들을 많이 만나고 싶은 마음이 커요. 이런 훌륭하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 있겠어요? 이런 공간이 있으니 활동 계획을 세우고 저희가 모임을 계속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바쁜 와중에도 귀한 시간 내어 많은 이야기 해주신 천연과 친해져 회장님께 고맙습니다. 회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활동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있을 때도 좋았지만 없을 때 얻는 유익을 들으며 많은 것이 생각났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주민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회원님들과 좋은 관계를 바탕으로 당신들이 하고자 하는 일 잘 준비해서 하시길 소망합니다. 많은 주민 만나 함께 활동하고 싶다는 회장님의 소망도 꼭 이뤄지길 바랍니다.

모임 ⑧ 꿈 자라다

오늘은 무슨 책 읽나요?

꿈 자라다 모임은 올해 처음 활동하는 모임입니다. 주요 활동은 월 2회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고 독후활동을 하는 겁니다. 책을 선정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하고 누가 읽을지 논의도 합니다. 읽은 책은 꿈자람 책 놀이 터 작은 도서관에 기증해드립니다. 참여하지 못한 아이들이 좋은 책을 읽길 바라는 마음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모임 소개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아이쿱 생협을 이용하는 방화2동 주민들과 강서구 보육반장이 함께하는 모임입니다. 아이들이 방화11중합사회복지관(?)을 많이 보고 있어 어떤 봉사활동을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꿈자람책놀이터에서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꿈, 자라다에서 직접 적어주신 모임 소개 내용

꿈 자라다 활동에 이전부터 계속 가고 싶었는데 일정이 맞지 않았습다. 그러다가 8월 22일 목요일에 진행된다는 소식을 듣고 설레는 마음으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어떤 책 읽어요?”

“발가락이라는 책을 읽어요.”

어떤 이야기일지 궁금했습니다. 활동시간이 되자 도서관에 있는 아이들

에게 책 읽어줄 테니 모이자고 하셨습니다. 몇몇 아이들이 꿈다락에 모였습니다. 김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발가락이라는 책 읽어주셨습니다. 발가락이라는 그림책은 행복한 꿈 여행을 돕는 잠자리 그림책입니다. 발가락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책이었습니다. 재미있었습니다.



꿈 자라다 활동 모습

“제가 그린 발은 고생한 발, 사랑하는 발이에요.”

“발에게 고마워하고 잘 거예요.”

“꿈에서 이야기할 거예요.”

책을 읽은 후 각자 발을 그려 본 아이들이 나눈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에

게 좋은 책 읽어주고 독후활동 해주신 꿈 자라다 선생님들에게 고맙습니다. 활동이 끝난 후 다음 활동을 위한 회의를 하셨습니다. 책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지 물어봤습니다.

“사서 선생님, 정한별 선생님이 추천해 주신 책을 읽어줄 때도 있고요. 저희가 회의를 하면서 이야기 나누는 책을 읽어주기도 해요.”

어떤 책을 읽어주면 좋을지 다양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잘 준비하려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활동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아이들이 많이 참여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해 아쉬운 점이 커요. 그거 빼고는 다 좋죠.”

“다음에는 선생님도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세요.”

“네. 읽어본 적은 없는데 한 번 도전해보겠습니다.”

꿈 자라다 활동은 2, 4주 화요일 16~17시까지 꿈자람 책 놀이터 작은 도서관에서 진행됩니다. 관심 있는 아이들이 참여해서 재미있는 그림책 이야기도 듣고 친구들과도 어울리면서 활동합니다. 그림책을 구실로 아이들을 만나 즐겁게 활동하실 꿈 자라다 선생님들을 늘 응원합니다.

양원석 소장

생협을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참여하시는 모임이네요. 다양한 분들이 함께 참여하시는 동네 사람들이라 좋아요~

사업평가

올해 활동하면서 어떠셨는지 이야기 나누기 위해 김 선생님을 복지관에서 만났습니다.

“꿈 자라다 활동하면서 뭐가 좋으셨어요?”

“동네 엄마들이랑 친해진 거요. 원래 알던 엄마인데 이걸 핑계로 더 자주 보게 되니깐 친해진 것 같아요.”

“꿈 자라다 활동하는 분들 소개 좀 해주세요.”

“꿈 자라다 활동은 보육 반장 3명, 동네 엄마들 2명과 같이 하고 있어요. 내년에는 다른 보육 반장 선생님들도 많이 오셔서 책도 같이 읽자고 제안했어요. 다들 좋다고 하셨어요. 재능이 다들 많으세요. 숲 전문가도 있고, 천연 화장품 만들 줄 아는 분, 독서 지도사 자격증 있는 분 등이 있어요.”

“와. 재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활동하면서 회원님들 간에 관계도 변화되신 부분이 있나요?”

“원래는 연이 엄마랑 함께하기로 했는데 중간에 사정이 생겨서 함께하지 못했어요. 그 이후 준이 엄마가 새로 들어왔어요. 준이 엄마가 들어오게 된 계기는 같은 학부모다 보니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우리 이런 활동하는데 같이 해볼래? 라고 물어봤는데 좋다고 해서 함께 하게 되었죠. 이후에 점심도 자주 먹고, 영화도 같이 보고 그래요.”

“그러시군요. 복지관에서 일하다 보면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좋아요. 중고등학교 때도 계속 오면 좋겠는데 시간이 바빠서 못 오더라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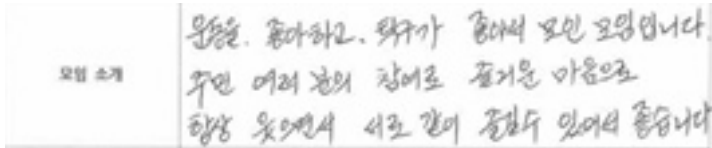
“안 그래도 내년이나 후년에는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고민하고 있어요. 욕심이긴 하지만요.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 안에 놀이터가 있는데 조금만 큰아이가 놀면 경비아저씨가 싫어하시더라고요. 더 어린 아이들이 놀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걸 보면서 중고등학생 아이들은 어디 가서 노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죠.”

꿈 자라다 선생님과도 많은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이야기 나누는 것이 처음이라 부담스럽기도 하셨을 텐데 당신의 생각 잘 이야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그림책을 구실로 아이들을 만나 즐겁게 활동하실 선생님의 활동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모임 ⑨ 탁구친구동아리

가을 나들이

탁구친구동아리는 운동과 탁구를 좋아하는 분들이 주 4회씩 모여서 활동하고 있는 모임입니다.



탁구친구동아리 전 회장이 작성해주신 모임 소개 내용

그러던 어느 날 탁구친구 동아리 윤 총무님께 전화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탁구동아리 총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번에 나들이 가는데 같이 가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럼요. 좋죠. 어디로 가실 계획이세요?”

“아직 이야기 증인데 선생님 일정 확인하려고 전화했어요.”

통화하면서 제가 가능한 날짜를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회원님들과 의논 후 연락 주신다고 했습니다. 가기 전에 생각해보니 오가다 인사하고, 탁구 할 때 잠깐씩 뵈던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놀러 가기 전에 회원님들 만나 인사하고 소개해야겠다고 생각했

습니다. 탁구 하는 날 지하강당에 내려가서 간단하게 소개하고 인사했습니다. 회원님들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나들이 함께 가게 된 권민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나들이 당일 회원님들이 모이셨습니다. 저도 처음 가보는 곳이었기에 두근두근 설레었습니다. 차 한 대는 제가 운전하고 한 대는 탁구친구 동아리 회원님이 운전해주셨습니다. 간식도 엄청 많이 싸 오셨습니다. 달걀, 오이, 굴 계속 옆에서 챙겨주셨습니다. 휴게소에 들러 뜨끈한 호두과자도 먹으라고 주셨습니다.

“회장님. 우리 사회복지사님 운전하시니깐 옆에서 잘 챙겨줘요.”

“원래 옆에 있는 사람이 챙겨주는 거예요.”

“회장님 잘 좀 챙겨봐요.”



탁구친구 동아리 회원님들 모습

이동하는 내내 차 안에서는 시끌벅적한 이야기와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전체 나들이 일정은 회원님들이 정하셨습니다. 식사 장소도 당일 둘러 보면서 직접 선택하셨습니다. 원주 간현 관광단지에 도착해서 소금산 출렁다리와 레일바이크 타신다고 했습니다. 출렁다리로 올라가는 길 가방도 들어주고 올라가는 길 기다려주고 힘내라고 응원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부 출렁거리는 다리를 건너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살짝 무서웠는데 회원님들은 잘 건너셨습니다. 하하하….



소금산 출렁다리에서 탁구친구 동아리 회원님들 모습

온종일 배부르게 맛있는 음식 먹고 많이 웃었습니다. 멋진 풍경도 많이 봤습니다. 길을 걷다 햇살에 비친 반짝거리는 물결도 봤습니다. 덕분에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생각도 정리하고 쉴 수 있었습니다. 제겐 업무이긴 했지만 쉽도 있었습니다. 좋은 나들이 초대해주신 회원님들에

게 고맙습니다. 나들이를 구실로 회원님들과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기회 되면 좋은 분들과 더 친해지기 위해 탁구도 배우러 놀러가 봐야겠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웃으면서 서로 즐겁게 탁구 하며 즐겁게 활동하시면 좋겠습니다.



탁구친구 동아리 회원님들 모습

동네 사람들 활동하면서 여러 모임 나들이에 초대받아 다니고 있습니다. 많이 다닐 땐 힘들 때도 살짝 있습니다. 하지만 모임별로 회원님들이 다 준비하시니 보통 제가 하는 일은 운전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좋은 곳 구경하고 누립니다. 회원님들과 이야기하며 친해질 수 있어서 좋습니다.

양원석 소장

함께 출발하기 전에 먼저 인사드려야겠다는 지혜. 그것을 직접 실천하시는 실행력~ 선생님~ 멋져요. (저라면 다리 못 건넜을 거예요~ 하하)

사업평가

올해 활동하면서 어떠셨는지 이야기 나누기 위해 탁구친구동아리 회장님을 복지관에서 만났습니다.

“탁구친구동아리 활동하면서 관계는 어떻게 변화되었어요?”

“저는 인생을 오래 살았잖아요. 인생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더불어 같이 살아야죠. 혼자선 외로워서 못 살고 같이 어울리면서 살아야지. 운동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의 건강상태는 하늘과 땅 차이고, 운동하다 보면 건강하고 행복해요. 행복하면 사람들의 마음씨도 좋아지고 그러면서 활동하니 좋죠. 우리는 자주 만나 운동하니 처음엔 서먹하고 그랬는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탁구도 치고 놀러도 다니고 월례회 하면서 의견도 공유하다 보니 많이 가까워지더라고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는 말도 있잖아요. 매일 만나다 보면 이웃사촌이 되고 가까워지죠.”

“다른 탁구 모임도 많이 나가신다고 이야기 들었어요. 복지관 탁구 모임과의 차별성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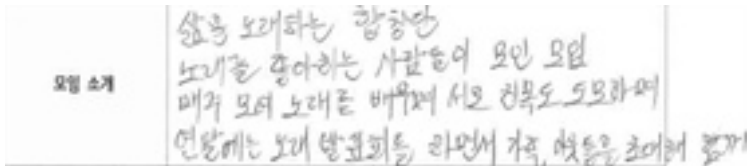
“다른 곳은 뭔가 어색하고 삭막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복지관은 복지관이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깐 왠지 부드럽고, 마음이 푸근하고 그런 게 있더라고. 그러면서 회원들끼리 친해지지. 여긴 회원끼리 가깝고 부드럽고 낙천적이죠. 그게 달라요.”

이야기를 나누면서 탁구친구 동아리에 애정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탁구라는 공통 관심사로 모인 분들이 앞으로도 좋은 관계 속에서 건강하게 활동하시길 소망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탁구친구 동아리 회장님 고맙습니다.

모임 ⑩ 방화마을 합창단

행복이 가득한 합창단

삶을 노래하는 방화마을 합창단에 다녀왔습니다. 방화마을 합창단은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입니다. 매주 모여서 노래를 배우고 서로 친목 도모하고 있다고 합니다.



합창단 회원이 직접 적어준 모임 소개 내용

요즘 발표회 연습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어르신들 일대기를 담은 내용으로 발표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휘자님의 손짓에 맞춰 각기 다른 목소리가 하모니를 이뤄갔습니다. 한 곡씩 부를 때마다 그때 그 시절을 추억하고 회상할 수 있게 지휘자 선생님이 잘 이끌어주셨습니다. 까까머리 시절부터 현재까지 과정을 노래로 풀어내셨습니다.

지휘자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노래하는 어르신들의 뒷모습을 보니 갑자기 울컥했습니다. 연습하는 장면을 본 것만으로 벅찬 감동이 있었습니다. 발표회 당일엔 어떤 하모니가 이뤄질지 기대되고 설레었습니다. 합창단에 오는 분들이 왜 행복하다고 이야기하셨는지 짧은 시간

이었지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른 목소리들이 하나의 목소리로 모여
하모니를 만든다는 것이 참 대단하고 멋지다 생각했습니다. 연습이 끝
난 뒤 발표회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 나누셨습니다.
함께 잘 준비하신 만큼 발표회 당일 가족과 친구 그리고 이웃들에게
큰 감동을 전해주시길 것 같습니다.



방화마을 합창단 연습 모습

양원석 소장

울컥했다는 말에 다시 한번 사진을 보게 되네요. 아마 공명이 되어서 그럴것
지요? 어르신들의 일대기를 담은 내용. 잘 풀어지기를 바랍니다.

사업평가

올해 활동하면서 어떠셨는지 이야기 나누기 위해 합창단 총무님과 회원님을 복지관에서 만났습니다.

“지난번 모임에 오셨을 때 합창단이 너무 행복하다고 하셨어요. 그 이유에 대해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실 수 있으세요?”

“합창단이 정말 좋아요. 너무 좋아요. 선생님들이 어르신들을 굉장히 포용을 잘해주세요. 그런 분 안 계실 거예요. 노래가 좋아서 나오신 분들이니깐. 행복하잖아요.”

“일단 여기에 오면 행복해요. 웃음이 많아져요. 제가 노래를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가곡, 동요 같은 걸 부르다 보면 어린 시절 추억으로 돌아가요. 너무 좋아요.”

“표정을 보고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행복하신 것 같아요. 평소에 더불어 산다는 의미에 관해 생각해보셨나요?”

“우리가 한마을에서 서로 도와가면서 산다는 뜻 아닐까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마을 사람에게 관심 가지고 같이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합창단 하면서 기억에 남았던 일 있으세요?”

“정말 많았어요. 유람선 타고 놀러 갔던 것도 기억나요. 입이 벌어질 정도로 웃었어요. 파주 박물관도 좋았고요. 여러 사람이 어울리고 그런 추억들이 너무 좋았어요. 너나 나나 너무 행복했어요. 노래도 함께 부르고요.”

“지나가다가 우리 집에서 차 한잔 먹고 가라고 이야기해요. 사람 사는

게 그렇잖아요 끝나고 나서 밥을 내가 한 번 사면 동생이 사고. 집에 가서 밥도 나눠 먹고. 이 동생 부르고, 저 동생 부르고 같이 먹었어요. 음악도 틀고요.”

“와. 정말 재밌게 지내셨네요. 그러면서 회원님들 간의 관계가 변화되기도 하셨을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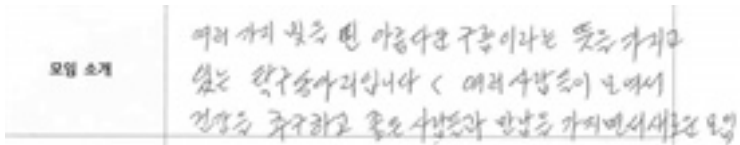
“그렇죠. 내가 무엇을 줘도 아깝지가 않아요. 뭔가 주고 싶고 만나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과 약속을 해도 합창단에 약속이 생기면 취소하기도 했어요. 그만큼 합창단 사람들이 너무 좋죠.”

이야기를 나누면서 말하는 내내 행복하다는 감정이 어떤 것인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합창단 이야기하며 정말 행복해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감정을 많은 분이 느끼시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노래가 주는 힘은 큼니다. 함께 모여 노래를 부르면 그 힘은 배가 될 것입니다. 내년에도 함께 노래 부르며 옛 추억을 회상하고, 좋은 관계 맺으며 즐겁게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모임 ① 꽃구름 탁구동아리

꽃구름 탁구동아리 반장님과 만남 및 사업평가

꽃구름 탁구동아리는 여러 가지 빛을 띤 아름다운 구름이라는 뜻을 가진 모임입니다. 올해 활동하면서 어떠셨는지 이야기 나누기 위해 반장님을 복지관에서 만났습니다.



꽃구름 탁구동아리 반장님이 직접 작성하신 모임 소개

“꽃구름 탁구동아리는 언제부터 처음 모이게 되셨어요?”

“작년에 처음 시작했어요. 여기에 꽤 오래 살았는데 복지관이 있는지 잘 몰랐어요. 탁구친구동아리 회장님이 예전에 10분씩 저희를 가르쳐 주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활동하시면서 회원님들과의 관계는 어떠세요?”

“많이 친해졌어요. 서로 얼굴 붉히거나 그런 건 없어요. 모이면 많이 웃고 그래요. 우리 모임은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여러 사정으로 자주 못 나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좀 아쉽죠. 그래도 힘내서 활동하려고 해요.”

“그래도 연락은 자주 하시면서 지내시죠?”

“그럼요. 연락은 자주 해요. 저희 모임 대화방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서로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도 하며 안부 주고받죠.”

“꽃구름 탁구동아리는 다른 모임과 어떤 점이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이제 시작하는 모임이잖아요. 앞으로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회원 간에 함께 나누는 모임이 되고 싶어요.”



꽃구름 탁구동아리 활동 모습

“탁구동아리 하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일 있으세요?”

“예전에 장애가 있는 분이 동아리에 오셨어요. 처음엔 어떻게 칠지 궁금했어요. 오른손은 잘 못 쓰시고 왼손으로 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되더라고요. 회원들이 깜짝 놀랐어요. 엄청나게 잘 치셨어요. 편견이 있었던 거죠. 그 모습 보면서 우리도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편견도 없어졌어요. 그리고 맛있는 음식 보면 회원들이 생각나요. 이걸 가져가서 함께 나눠 먹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죠. 별건 아닌데. 회원들 생각나서

가지고 왔다고 하면 엄청 좋아해요. 차도 보온병에 담아와서 나눠 먹고, 다들 좋아하니깐 저도 좋아요.”

꽃구름 탁구동아리 회장님을 만나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임 운영에 대해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일하는 분이 많다 보니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함께 탁구 해야 더 즐거운데 그러지 못해 늘 아쉬움이 크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회원을 항상 모집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으로 문의가 오면 반장님께 직접 연결해드립니다. 관심이 있어서 오신 분들도 있지만, 꾸준히 이어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꽃구름 탁구동아리 반장으로 책임감 있게 잘 이끌어가고 싶은 마음을 느꼈습니다. 내년에는 탁구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해 즐겁게 활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네 사람들 공유모임

상반기 공유모임

상반기 공유모임이 원래는 7월에 진행되기로 했으나 폭우로 인해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에 일정을 다시 잡아서 진행했습니다. 총 11개의 모임 중 한 개 모임을 제외하고 전부 모여주셨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많은 분이 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각자 열심히 활동은 하셨지만 전체가 모이는 건 설명회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간단하게 인사하고 소개했습니다. 소개 후에는 상반기 동안 각 모임에서 어떤 활동 하셨는지 이야기 나눠주셨습니다.



동네 사람들 상반기 공유모임 모습

탁구친구동아리는 얼마 전 회장님이 바뀌셨습니다. 이런 모임 처음 오신다고 하면서 좋다고 하셨습니다. 정기적으로 모여 탁구 하고, 나들이 다녀온 이야기 설명해주셨습니다. 탁구의 좋은 점도 이야기해주셨습니다. “탁구 하면 건강하고 좋아요. 여기 있는 분들도 관심 있으면 참여해보세요.”

정가든에서는 예전 정가든의 역사부터 현재까지 이르는 과정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셨습니다. 정가든에 대해 잘 몰랐던 분들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복지관에서 정가든 지원을 해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병원에서 후원도 땀어요.”

이야기를 들은 박 씨 어르신은 늘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보기 좋다고 이야기해주셨습니다. 다른 분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해주셨습니다.

“정가든은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들이 많이 와요. 올 때마다 약은 잘 챙겨 먹었는지 확인도 하고, 안부확인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앞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을 찾고 만날 거예요.”

정가든 오뚝이 회장님이 이야기하신 후 관장님도 거들어서 이야기해주셨습니다.

“정가든은 주변에 우울증 있는 분들 가정에도 방문하고 계세요. 예전에 돌아가신 주 씨 아저씨 집에도 걱정되어 찾아갔다가 제일 먼저 돌아가신 것을 발견하셨죠.”

꿈 자라다에서도 활동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아이들과 어떤 책을 읽었고 활동하셨는지 잘 이야기해주셨습니다.

“활동을 하면서 제일 뿌듯한 점은 새 책을 구매해서 도서관에 기증한다는 점이에요. 동네 아이들이 새 책을 빨리 접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점이 뿌듯해요.”

꽃보다 할매에서는 나들이 다녀온 이야기 해주시면서 하반기에도 갈 거라고 자랑하셨습니다. 1동 앞에서 매일 모여 이야기 나누는 것도 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매일 만나니 서로 의지 된다고 하셨습니다.

소드래에서는 재능 나눔 이야기 들려주셨습니다. 어르신들과 오물딱 조물딱 했던 것, 지역주민들과 열린 주방 했던 이야기 나눴습니다.

“열린 주방의 경우 오전에 하면 많이 오실 것 같은데, 오후에 하다 보니 많이 못 오셔서 아쉬워요. 그래서 지난달에는 아이들과 함께 참여해도 좋다고 이야기했더니 몇 분 더 오셨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도 시간 되시면 신청하세요.”

요리동아리 삼시세끼에서도 활동내용 나눠주셨습니다. 회원들과 마을 공동체 효도밥상이 함께 모여 음식 만들어서 나눠 먹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반기에는 이웃과 함께할 수 있는 활동도 구상하고 계셨습니다. 특히 이번엔 방화2동 동 단위 주민모임 지원사업에 신청하셔서 선정되신 이야기도 전해주셨습니다. 다 함께 축하했습니다.

방화마을합창단에서도 활동내용 나눠주셨습니다. 25주년 개관기념식 때 공연한 이야기, 합창 끝나고 다과 나누며 이야기 나눴던 것, 연습했던 것 등 나눠주셨습니다.

“합창하러 가면 행복을 느껴요. 옛 추억이 되살아나요. 순간순간 행복감을 느낍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순간의 행복을 느껴보시면 좋겠어요.”

무궁화회에서는 매주 월요일마다 모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만나서 나들이도 가고, 음식도 직접 해서 나눠 먹으며 활동하셨다고 합니다. 휠체어 수리 봉사는 하고 싶지만, 주변에서 의뢰가 없어서 진행하지 못해서 아쉽다고 하셨습니다. 주변에 필요한 분 있으면 무궁화회에 알려주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하셨습니다.

천연과 친해져에서도 회원들과 모여서 천연제품 만든 이야기, 모임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과 과정 이야기해주셨습니다.

미술동아리 네잎클로버에서도 함께 그림 그리고, 밥 나눠 먹은 이야기 들려주셨습니다. 2층 올라오는 복도에 전시된 그림도 올해 중에 교체할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동네 사람들 상반기 공유모임 모습

전체 모임에서 상반기 동안 어떤 활동 하셨는지 잘 이야기해주셨습니다. 공유모임을 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관계였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만났지만, 기존에도 다 알고 있는 관계였습니다. 나눔을 주기

도 하고, 받고 있었습니다. 손자의 자전거를 수리해준 사장님과 손님으로, 단기사회사업 참여 청소년 어머니으로, 단기사회사업 마을 선생님으로서 관계가 있었습니다. 재능 나눔 선생님과 참여자로서의 관계도 있었습니다. 신기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그때 만났던 그 사장님이었구나. 반가워요.”
각자 활동한 이야기 잘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끝나기 전 영상 보면서 어떻게 활동했는지 보기도 하고 추억을 되새기기도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다양한 활동을 영상으로 보는 모습

“오늘 참여하시면서 어떠셨어요?”

“동네 사람들에서 선정증서를 받기 위해 모였던 자리가 있었어요. 그땐 이런 모임들이 있다는 것을 막연하게 생각했었는데, 오늘 뵈고 나서는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알게 된 것 같아요. 탁구, 미술, 합창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탁구는 아이들과 같이 가고, 미술은 제가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해서요.”

“정가든에는 차 마시러 놀러 오세요.”

“오늘 이런 모임은 처음 와봤어요. 이렇게 많은 모임이 활동하고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이런 모임에는 처음 왔는데 굉장히 반갑고, 좋지요. 다 함께 만나서 종종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럿이 만나면 좋네요. 만나서 의견도 나누면 좋겠어요. 우리 복지관에 이렇게 많은 모임이 있는지, 복지관에서 이렇게 일을 많이 하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가슴이 뿌듯합니다. 앞으로 좋은 일 많이들 해주면 좋겠습니다.”

11월 말에서 12월 초쯤 동네 사람들 공유모임이 한 번 더 진행됩니다. 더 풍성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도록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면 좋을지 잘 궁리해봐야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함께 참여해서 귀한 이야기 전해주시는 각 주민모임 분들 이야기 들으면서 활동 잘하셨다고 지지와 격려해주시고, 중간중간 풍성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김상진 관장님, 김은희 부장님, 김미경 과장님. 동네 사람들 공유모임 준비, 진행, 정리 도와준 최건우 요원에게 고맙습니다. 덕분에 잘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사회 곳곳에서 즐겁게 활동할 동네 사람들을 응원합니다.

김상진 관장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자리였습니다. 늘 응원합니다.

김수재 선임 과장

이야~~대단합니다 동네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활동들을 다들 멋지게 해주고 계시네요. 이러한 이웃들이 우리 마을 가까이에서 함께 하고 있으니 든든합니다. 동네 사람들과 함께 하는 주민모임들 참 감사해요. 응원합니다.

하반기 공유모임

주민모임의 주도적 활동과 관계를 돕는 동네 사람들 하반기 공유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총 11개의 모임 중에서 10개 모임의 리더분들과 회원 분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귀한 시간 내어 참석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궁리하다가 상반기와 같은 방식으로 하되 즐거웠던 일, 추억에 남는 일 등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 나누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로 돌아가면서 이야기 나눠주셨습니다.



동네 사람들 하반기 공유모임 모습

탁구친구동아리 회장님께서 먼저 이야기해주셨습니다.

“우리는 탁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탁구 한 지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동아리에서 대회를 나갔었는데 옛날에는 항상 예선에서 떨어졌었어요. 그런데 열심히 치다 보니 복식으로는 1등 했고 개

인천에서는 제가 2등 해서 한턱냈습니다.”

모든 분이 손뼉 치며 축하해주셨습니다. 탁구 회장님께서 사진 보면서 이야기 또 나눠주셨습니다.



탁구친구동아리 활동사진

“이 사진은 평상시에 우리 동아리에서 연습하고 있는 사진이고 이거는 이번에 강원도 간현 관광단지에 소금산 출렁다리랑 레일바이크 타고 온 사진이네요. 권민지 선생님과 함께 잘 다녀왔어요. 야유회가 좋은 게 뭐냐면 매일 탁구동아리에서 만나지만 서먹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야유회 갔다 오면 친해지고 단합도 잘되고 화합이 잘돼서 좋더라고요.”

다음으로는 꽃구름 탁구동아리에서 활동 이야기해주셨습니다. 상반기에는 다른 일정으로 참여를 못 해주셨기에 간단하게 먼저 소개를 하고 올해 어떻게 보냈는지 이야기 들려주셨습니다.

“여기서 보니 내가 나이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오후 탁구동아리입니다. 전부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모이기가 좀 힘들어요. 저는 열심히 나가고 있는데 칠 사람이 없어서 곤란할 때도 있어요.”

“올 한 해 활동하면서 기억에 남거나 즐거웠던 이야기 들려주실 수 있으세요?”

“처음에는 너무 재미있어서 3시간을 내리쳤어요. 쉬지도 않고 쳤어요. 그러다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그건 살인행위니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부터는 많이 치고 있지는 않아요.”

이야기를 듣다가 오전 탁구반 회장님도 이야기를 보태어주셨습니다. 함께 모이다 보니 서로 정보도 교류하고 관심도 가지니 좋았습니다.



동네 사람들 하반기 공유모임 모습

다음은 정가든에서 이야기 들려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가든 회장입니다. 저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늘 3층에서 모이고 있어요. 이렇게 모이면 각자 집에서 음식도 조금씩 싸 와 나눠 먹고 부침개도 만들어 먹고 그러면서 지냈어요. 정가든 아니면 갈 데가 없어요, 집에 가면 우울하다고 말하는 분들도 많이 와요. 약은 먹었는지, 병원엔 언제 가는지 확인도 하고 필요할 때 서로 돕고

나누고 있어요. 어떤 때는 복지사님들한테 부탁하기도 해요.”

“저희가 또 하는 일은 두 달에 한 번씩 가든파티를 해요. 함께 음식을 준비해서 나눠 먹고, 이야기 나누고, 노래 부르고 선물 주고 그래요. 봄가을에는 가까운 곳이라도 놀러 가려고 해요.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해야 하니깐 회비도 올리고 후원처도 뚫었어요. 제가 가는 병원 두 군데에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는 곳인지 설명했더니 도와주셨어요. 앞으로 송년회만 남았어요. 12월에 하는데 정가든 회원 말고도 다른 이웃들을 초대해서 일 년을 잘 마무리하려고 해요.”

“가든파티를 매번 정가든에서만 했다가 어떻게 주민센터와 함께했는지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동사무소에서 정가든에 찾아와서 함께 하자고 제안했어요. 그래서 함께 활동하고 있어요. 요즘 자살 사건도 많고 우리 11단지도 다 어려운 분들이고 혹시나 하는 마음과 걱정에 정가든 임원들이 이웃 살피미로 활동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 교육도 받고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정가든 가든파티, 송년회도 함께 하게 되었어요.”



동네 사람들 하반기 공유모임 모습

“이번에 주민센터에서 김 80개를 사서 줬어요. 혼자 사는 50대 남자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별일은 없는지 확인했어요. 김장도 하는데 그때 김장도 나눠주라고 해요. 힘들긴 하지만 안 좋은 사건들이 생기기 전에 우리가 좀 살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기쁨으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보람 있게 감사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후 다른 모임 대표님들과 회원님들이 고생한다고 손뼉 쳐주셨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나누는 시간이 참 귀한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천연과 친해져도 하반기에 어떤 활동을 주로 하셨는지 이야기 들려주셨습니다.

“저희 천연과 친해져는 천연제품을 만드는 모임입니다. 한 달에 두 번씩 공고를 내면 신청자를 받아서 재료를 준비해서 만들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를 평가해보면 새로운 제품에 대한 도전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선크림도 새롭게 도전해봤고, 핸드크림, 글리세린 영양팩, 립밤도 만들어봤어요. 새로운 것들을 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네요. 그리고 어머님들이 참여하면서 나는 스킨도 좀 필요한데, 로션도 좀 필요한데 그러면 그 안에서 응용해서 함께 만들어보기도 했어요. 오셔서 재미있게 이야기도 하고 그래요. 어떤 분들은 천연제품 만들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 말하고 싶고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 온다는 분들도 계세요.”
관심 있어 하는 분들에게는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알려드리기도 했습니다.

무궁화회 활동도 이야기해주셨습니다.

“무궁화회는 오래되었어요. 특별하게 하는 건 없는데요. 저희는 봄가을에 나들이 다녀오고 마지막 주 월요일에 모이고 있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회원들이 함께 이야기해요. 정이 그리워서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은 15명 정도가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그냥 만나는 것도 좋지만 맛있는 음식 함께 만들어 먹으면서 활동하고 있어요. 국수도 삶아 먹고 부침개도 부쳐 먹고 그러면서요. 원래는 휠체어 사업도 하려고 했는데 활성화가 잘 안 돼서 아쉬운 점이 커요.”



무궁화회 가을 나들이 모습

“저 사진은 가을 나들이 때 사진이네요. 너무 좋았어요. 가면 힐링 되잖아요. 단풍도 너무 좋고 사람들도 좋다고 하고 사진도 찍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다 좋았어요.”

“저는 오늘 오라고 해서 따라왔어요. 작년에는 거의 못 나왔다가 올해부터 다시 나왔는데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맨날 집에만 있다 보니 죽어있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밖을 나오니 확실히 살아있

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모두 건강만 챙기면 사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해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기잖아요. 건강만 하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고맙습니다.”

“네잎클로버 미술동아리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미술동아리는 미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8~10명 정도 나오고 있어요. 서로 미술을 좋아한다는 마음으로 같이 대화하고 도시락도 싸 와서 나눠 먹으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좋은 장소를 제공해주셔서 우리가 굉장히 즐겁게 나오고 있어요. 서로의 마음이 즐겁고 단합도 잘 되고 있어요.”



미술동아리 활동 모습

“이 사진은 언제 찍으신 거예요?”

“음... 회식할 때 모습이에요. 회원들이 각자 회비를 걷어서 함께 음식 나눠 먹었어요. 미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밥도 먹고 그래요. 매년 전시회도 했었는데 전시회를 못 하니 2층에 작품이라도 좀 바꾸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마음이 좋지 않아요.”

“기억에 남는 일은 있으셨어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건강하게 나와서 함께 한다는 점이예요.”

다음은 요리동아리 삼시세끼에서 활동 이야기 들려주셨습니다.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활동하고 있어요. 복지관에서 고기도 후원해줘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 식물원으로 나들이도 다녀왔고 10월에는 주민 대축제를 직접 진행했어요. 무명가수도 초대하고 회원들이 음식을 직접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재미있었어요.”



요리동아리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 모습

“매달 요리를 만들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요리는 랍스터 양념구이와 불고기 덮밥이 기억에 남아요. 저 사진이 랍스터 요리할 때였어요.”

“먹는 것이 가장 즐겁지 뭐.”

“매달 한 번씩 다양한 요리를 할 수 있어서 좋아요. 앞마당 축제했을 때도 많은 주민이 참여해주셔서 즐겁게 잘했던 것 같아요.”

꿈 자라다 이야기도 전해주셨습니다.

“저희는 보육 반장 선생님들과 동네 어머님들이랑 해서 5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어요. 복지관 1층 꿈자람 책 놀이터 작은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 하반기 공유모임 모습

“저는 꿈 자라다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는 것도 재미있고 새 동화책을 구입해서 아이들과 보고 다 읽은 책은 도서관에 기증하는 것도 좋았어요. 새로운 책도 접해서 좋았고 활동하는 친구들과의 관계도 좋아진 것 같아요.”

“이 사진은 어떤 모습이에요?”

“저분은 보육 반장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분인데요. 저분이 가지고 온 책의 내용은 나나라는 앞을 보지 못하는 어린이가 코끼리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고요. 저 사진은 삶은 달걀이라고 해서 삶과 달걀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풀어내는 그림책이었어요. YMCA 어린이집 친구들도 책 들으러 와줬어요.”

방화마을 합창단은 오늘 개인적인 일로 참여를 못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임으로 오셨지만, 합창단에서도 활동하고 계신 분에게 이야기 들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합창단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고 있어요. 12월에 발표회를 할 예정이니 많이들 놀러 오세요.”

합창단 사진을 보면서 대신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얼마 전 연습에 참여하면서 느꼈던 생각들도 말씀드렸습니다. 왜 합창단이 행복하다고 했는지 잠깐이지만 간접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꽃보다 할매에서도 이야기 들려주셨습니다.

“꽃보다 할매는 모인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동네 할머니들이 모여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활동한 것이 없어서 발표할 것이 없네요. 앞으로 많이 해야죠. 나들이 다녀오고 얼마 전엔 저녁 먹었어요.”

꽃보다 할매는 동네에 계신 할머니들의 모임입니다. 일상 속에서 만나다 보니 크게 활동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 모습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2시~3시 사이 1동 앞에서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안부확인도 하면서 좋은 관계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소드래에서도 활동 이야기 들려주셨습니다.

“저희는 자체 활동보다는 재능 나눔 활동을 많이 했어요. 상반기에 10회, 하반기는 9회 차 수업을 끝냈습니다. 한 번 더 남았어요. 오물딱조물딱 하면서는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부

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어요. 열린 주방도 올해 6회 계획을 했는데 5회까지는 적은 인원이지만 활동을 잘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인원이 모이지 않아서 활동을 못 해서 아쉬워요.”

“어르신들과 수업은 잘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를 해볼까 했었는데 어르신들이 집 안에 장식하고 오래 두고 볼 수 있는 것들을 좋아하셔서 중간중간 수업을 바꿔서 진행했었어요. 올 한 해 어르신들과 많은 주민과 함께해서 즐거웠어요.”

“이 사진은 어르신들과 함께 비즈 팔찌를 만들었을 때네요. 어르신들이 잘 안 보이셨을 텐데도 하나하나 구슬 끼시고 그랬어요. 어떤 어르신은 다른 분에게 보여줬더니 훌쩍 빼서 가져갔다고 속상해하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또 만들자고 하시더라고요. 저 비즈는 저희가 동대문 가서 하나 하나 심혈을 기울여서 골랐어요. 어르신들이 좋아하셔서 저희도 좋았습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예쁜 팔찌를 해봤나 하면서 이야기하셨다고 해요. 정말 좋아하셨어요.”

동네 사람들 어떻게 활동하셨는지 이야기 나누다 보니 꽃구름 탁구동아리 회장님이 오셨습니다. 올 한 해 기억에 남는 일 여쭙봤습니다.

“저희가 시작은 작년 10월부터 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일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 오후에 모여서 활동하고 있어요. 탁구 치니 재미있어요. 탁구는 별로 말이 없어요. 그냥 탁구를 하는 거잖아요. 건강한 마음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오늘 저희 모임에서 제일 왕언니가 함께 와주셨어요. 88세이신데 열정이 대단하세요. 이런 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좋아요.”



동네 사람들 하반기 공유모임 모습

마지막으로 올해 함께했던 사진 보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저희가 3월 7일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벌써 11월 이라니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두 번째 사진은 4월 11일 선정모임 사업설명회 때 모습이에요. 선정증서 전달하고 올 한 해 잘해보자고 이야기했었어요. 8월 23일에 다 함께 만나서 상반기 때 어떻게 활동했는지 나눠주셨는데 그때는 꽃구름에서 못 오셨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려요.”

부장님도 이야기 보태어주셨습니다.

“아까 관장님도 잠깐 이야기하셨는데 복지관에 왔을 때 누구나 무언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때 어울려서 활동하는 모임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컸습니다. 다들 능력이 출중하셔서 올해 잘 활동해 주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잘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우리 주민모임에서 활동하는 모든 분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민들의 힘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모임의 활성화를 위해 저희도 잘 돕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올해 동네 사람들 활동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초반에 계획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그동안 잘해온 모임들이 앞으로도 잘 활동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2019년 잘 활동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못 나눈 이야기는 1:1 인터뷰를 통해 더 나누고자 합니다. 내년에는 어떤 방식으로 동네 사람들 활동이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주도성을 가지고 좋은 관계를 맺으며 활동할 수 있도록... 동네 곳곳에 웃음소리가 많아질 수 있도록... 서로 돕고 나누는 모습이 많아질 수 있도록... 잘 궁리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양원석 소장

사진으로 생생하게 보면서 이야기 나누고,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방식이 좋아요. 자극도 되고 또 도전도 되고. 그래서 한해 잘 이루겠다는 다짐도 하고~ ^^

〈서로에게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

앞으로도 즐겁게 활동할 동네 사람들 응원해요!

앞으로 즐겁게 생활하며 서로 사랑하며 열심히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새해에 복 많이 받으세요.

내년에도 모두 건강하시고 즐거운 한 해가 됩시다.

올해는 정말로 행복한 2019년이었습니다. 2020년도 더 건강하고 화합하고 행복한 2020년 되길 바랍니다.

올 한 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시간이 계속되길 바랄게요. 할머니들 건강하시기를.

건강이 최고! 탁구동아리 파이팅!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방화11복지관 파이팅! 무궁화회 파이팅!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함께해준 유여사, 방쌤, 명쌤, 정여사님 고마워요. 같이 책 읽은 친구들도 고마워요. 사랑해요.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합니다!

방화11복지관 한해도 감사했습니다. 천연과 친해져도 즐겁게 활동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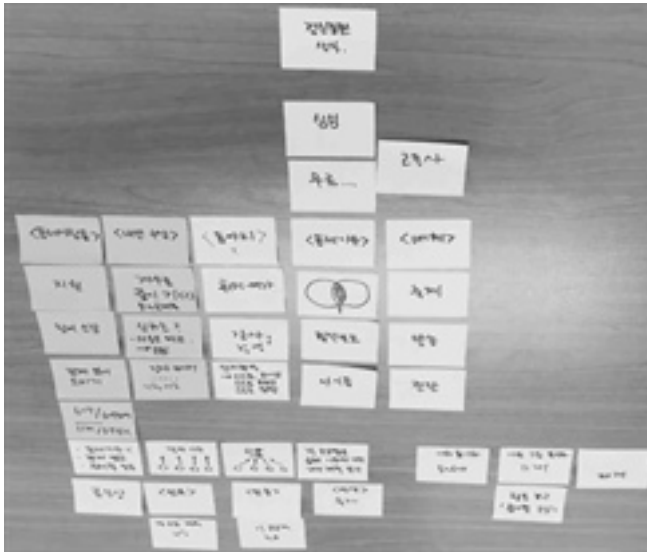
꽃구름 탁구동아리 파이팅. 한 해 동안도 즐겁고 건강한 마음으로 탁구를 했는데 2020년도에도 행복하고 기쁜 한 해가 되기를.

올해도 방화11복지관에서 많은 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마무리

동네 사람들 내년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동네 사람들 사업을 내년에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고민하던 중에 양원석 소장님께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컨설팅 내용

지역의 소모임이 많을수록 사회적 자본이 많다고 합니다. 하나의 이슈에 자기 모임 정체성은 유지하면서 느슨하게 참여하는 모임들이 많으면 어떻게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단, 이슈를 선정할 때는 누구나 인정할 만한 이슈여야 하고, 주민과 사회복지사의 공통 이슈를 고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느슨한 결합방식에서 무거운 주제는 맞지 않는다고 하니

다. 그렇기에 각자 모임 특성에 맞는 활동을 하면서 주변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할 만한 내용을 공통의 주제로 선정하면 좋겠다는 컨설팅을 받았습니
다. 컨설팅받은 내용을 반영하여 2020년에도 주민이 직접 공모 제안하는
방식으로 주민의 주도성을 강화하여 스스로 모임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 기관의 미션과 비전에 맞게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하는 모임을 중심으로 동네 사람들 사업을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배움 소망 감사

배움

동네 사람들 사업을 준비하면서 선행연구를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사업이 동 중심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어떤 연관성이 있고, 법과 정책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면서 동네 사람들 사업이 왜 필요한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관도 조사했습니다. 다른 기관에서는 주민공모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했는지 정보를 얻었습니다. 정보를 얻으면서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준비하면 좋을지 궁리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에 잘 활동하고 있는 모임에서도 참여하셨습니다. 하지만 담당 사회복지사 없이 스스로 모임을 꾸려나가신 건 올해가 처음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당신들이 할 수 있는 역할로 즐겁게 활동하시고 주민들과 좋은 관계 맺어나가셨습니다. 주민의 힘과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모임별로 주민들을 만나 이야기 나눴습니다. 주민들이 생각하는 더불어 사는 삶, 주도성, 나눔에 대한 개념과 생각이 그리 거창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사회사업은 소박하게 해야 한다는 점, 일상을 도와야 한다는 점, 당사자의 곳에서 당사자의 것으로 할수록 좋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소망

내년에는 어떤 방식으로 동네 사람들 활동이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주도성을 가지고 좋은 관계를 맺으며 활동하시길 소망합니다. 동네 곳곳에 웃음소리가 많아지고 서로 돕고 나누는 모습이 많아질 수 있도록 잘 궁리하고 준비하겠습니다.

동네 사람들에서 활동하는 모임들이 복지관에서 지원되는 예산을 마중물 삼아 활동하시길 소망합니다. 향후에는 예산이 점차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산이 없다고 활동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과 관계 맺으며 스스로 모임을 운영할 수 있는 바탕을 잘 만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

사업에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준 주민들에게 고맙습니다. 올해 연초 많은 분이 사업에 대한 정보를 잘 아셨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과 방화 11단지 아파트 곳곳에 홍보지를 부탁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오가다 보신 분들이 동네 사람들 사업에 관심 가져주셨습니다. 길 가다 만난 분, 복지관에 오신 등 직접 만나 설명해드리니 관심 가지고 잘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좋은 자리를 주신해주신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잘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하면서 두 번의 사업설명회와 두 번의 공유모임을 진행

하였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많은 모임에서 참석해주셨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눌 때 잘 경청해주셨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셨습니다. 서로 응원하고 지지해주셨습니다. 모든 과정이 의미 있었습니다. 주민 분들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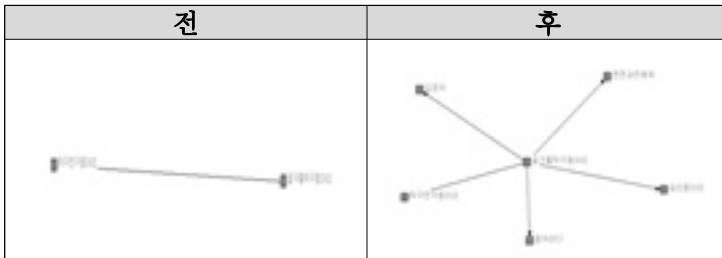
동네 사람들로 활동하는 모임에서 초대해주셨습니다. 함께 인사 나눴습니다. 당신들 모임 소개해주시고 잘 챙겨주셨습니다. 어떤 활동하는지 우리는 왜 모였는지 많은 이야기 나눴습니다. 모임별로 특성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옆에서 이야기 나누고, 먹고, 운전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활동에 참여하면서 몰랐던 분들도 많이 알 수 있었습니다. 모임에 놀러 간다고 했을 때 기꺼이 오라고 환대해주신 분들, 초대해주신 모든 분에게 고맙습니다. 덕분에 우리 마을에서 어떻게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관계 맺어나가시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뒤에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김상진 관장님, 김은희 부장님, 김미경 과장님께 고맙습니다. 덕분에 잘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진행되는 사업이라 걱정이 컸습니다. 하지만 담당자를 믿고 신뢰 해주셨습니다. 때마다 직접 참여하시면서 주민들과 인사하고 힘 보태어주셨습니다. 담당자의 의도를 잘 알아주시고 적절하게 슈퍼비전 주셨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양원석 선생님께도 고맙습니다. 동네 사람들 사업과 관련하여 고민이 있을 때 이야기 잘 들어주시고 담당자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게끔 도와주셨습니다. 명쾌하게 고민이 해소되었습니다. 뒤에서 응원하고 힘 보태어주는 분들 덕분에 사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관계망 변화

주민모임 활동을 통해 관계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직접 관계망을 그려 달라 부탁했습니다. 그 값으로 유씨넷(Ucinet) 프로그램을 활용해 동네 사람들에 참여하기 전과 후에 관계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모임별 리더분들에게 질문했던 내용으로는 ‘동네 사람들 활동하기 전에 인사하고 지냈던 모임이나 알고 지낸 모임이 있었는지’, ‘동네 사람들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모임, 인사하는 모임, 새롭게 알게 된 주민, 관계가 강화된 모임 혹은 주민’이 있었는지 여쭙었고 그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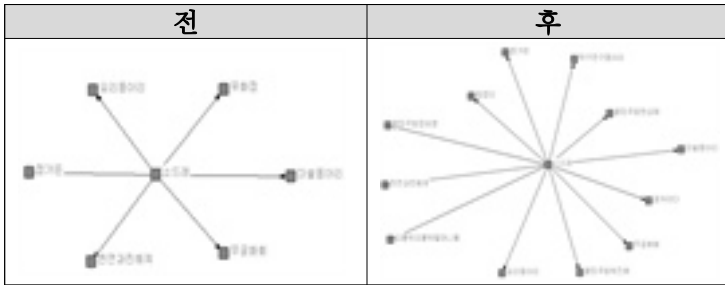
꽃구름 탁구동아리 관계망 변화



동네 사람들에 참여하기 전에는 탁구친구동아리만 알고 있었으나 동네 사람들에 참여한 이후 꿈 자라다, 천연과 친해져, 요리동아리, 미술동아리 회원을 알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특히 미술동아리 회원님의 경우 활동 공유모임에서 탁구동아리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후 기초반인 꽃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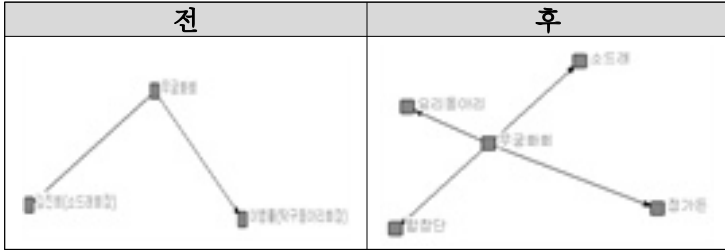
름 탁구동아리에 연락하여 활동 이야기를 나누며 새롭게 알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동네 사람들 참여 전보다 후에 관계망이 4개 늘어났습니다.

소드래 관계망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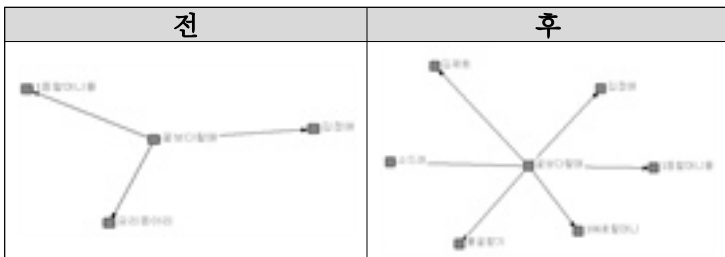
동네 사람들에 참여하기 전에는 요리동아리, 정가든, 천연과 친해져, 미술동아리, 무궁화회, 정이 님을 알고 계셨다고 합니다. 특히 정이 님은 동네에서 학부모로 알고 지낸 관계였지만 동네 사람들에 참여하면서 꿈 자라다로 활동하는 분이란 것을 처음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또한, 참여 이후 새롭게 알게 된 주민 혹은 모임, 인사하며 지내는 주민 혹은 모임에 대해서 꿈 자라다, 탁구친구동아리, 방화마을 합창단, 재능 나눔 활동으로 만난 주민들을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참여 전보다 6개의 관계망이 늘어났습니다.

무궁화회 관계망 변화



동네 사람들에 참여하기 전에는 탁구친구 동아리 전 회장님, 소드래 김 선생님만 알았으나 참여 이후에는 방화마을 합창단, 요리동아리, 정가든, 소드래에 대해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특히 개인적으로만 알았던 관계에서 활동 이후 모임 구성원과 활동들에 대해 알게 되셨다고 이야기해주셨습니다. 참여 전보다 4개의 관계망이 늘어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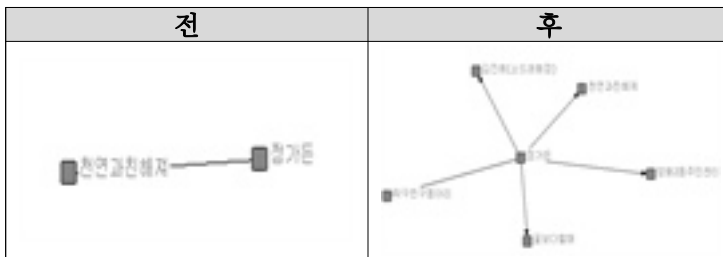
꽃보다 할매 관계망 변화



동네 사람들에 참여하기 전에는 1동에 사는 할머니들과 요리동아리, 그리고 김 씨 어르신과 관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참여 이후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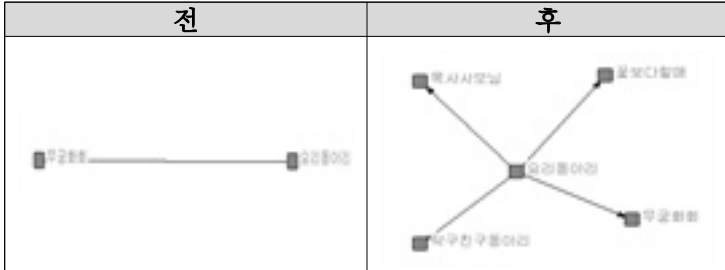
원래 1동 할머니로 알고 지냈지만, 더 친해졌다는 희 씨 어르신, 풀꽃향기, 오물딱 조물딱 프로그램에서 만난 소드래 선생님들, 106호 할머니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었고, 원래 알고 지냈던 김 씨 할머니는 꽃보다 할매 활동을 하면서 더 챙기게 되고 관심을 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참여 전보다 4개의 관계망이 늘어났고 기존 관계는 강화되었습니다.

정가든 관계망 변화



동네 사람들에 참여하기 전에는 천연과 친해져만 알고 있었으나 참여 이후 꽃보다 할매, 방화2동 주민센터, 소드래 회장, 탁구친구 동아리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다른 모임과 다른 점은 공공기관인 방화2동 주민센터와 새로운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로 활동하면서 여러 사업을 연계할 기회가 생기다 보니 정가든의 새로운 관계망으로 들어갔습니다. 참여 전보다 4개의 관계망이 늘어났습니다.

요리동아리 관계망 변화



동네 사람들에 참여하기 전에는 무궁화회만 알고 있었으나 참여 이후에는 꽃보다 할매, 탁구친구동아리, 목사 사모님과 더 알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목사 사모님의 경우는 요리동아리에서 주관한 밥상 친구 Day에 와주셔서 기존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강화되었다고 이야기해주셨습니다. 참여 전보다 관계망이 3개가 늘어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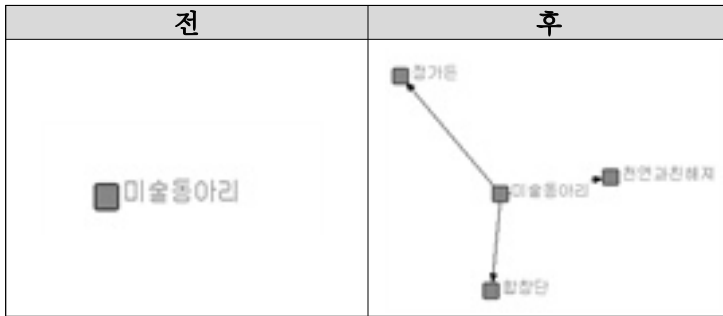
탁구친구동아리 관계망 변화



동네 사람들에 참여하기 전에는 본인이 활동하고 있는 탁구친구 동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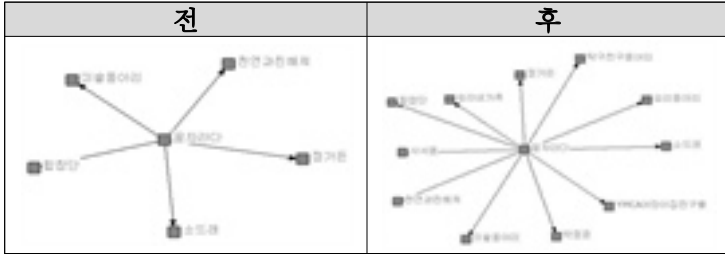
밖에 몰랐으나 동네 사람들에 참여하면서 천연과 친해져, 꽃보다 할때, 박 씨 할머니를 새롭게 알게 되었고 기존에 알았던 꽃구름 탁구동아리와 교류하며 관계가 더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경 님의 경우 기존에 동아리에서 활동하는 회원이었지만 올해 좀 더 가까워졌다고 이야기하면서 기존 관계가 강화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박 씨 어르신은 예전에 손주 자전거를 고치러 본인이 운영하는 자전거포에 왔었는데 이렇게 동네에서 활동하고 있는 줄은 몰랐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참여 전보다 관계망이 5개가 늘어났고 강화되었습니다.

미술동아리 네잎클로버 관계망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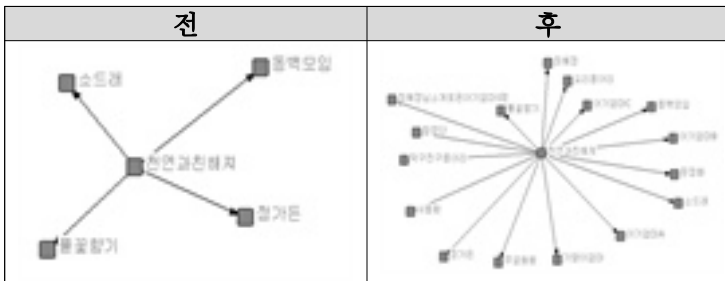
동네 사람들에 참여하기 전에는 본인이 활동하고 있는 미술동아리밖에 몰랐으나 참여 이후 공유모임에서 만나면서 천연과 친해져, 정가든, 방화마을 합창단에 대해 알게 되었고 관심이 갔다고 하셨습니다. 참여 전보다 관계망이 4개 늘어났습니다.

꿈 자라다 관계망 변화



동네 사람들 참여하기 전에는 천연과 친해져, 정가든, 방화마을 합창단, 미술동아리, 소드래를 알고 계셨다고 합니다. 참여 이후에는 아이들에게 읽어 줄 책을 구입하고 의논하는 과정에서 꿈자람 책 놀이터 작은 도서관 사서 선생님에 도움을 많이 받아 이전보다 관계가 친밀해졌다고 이야기해주셨습니다. 이 외에도 YMCA 어린이집 아이들, 승리네 가족, 준 님, 요리동아리, 탁구친구동아리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참여 전보다 6개의 관계망이 늘어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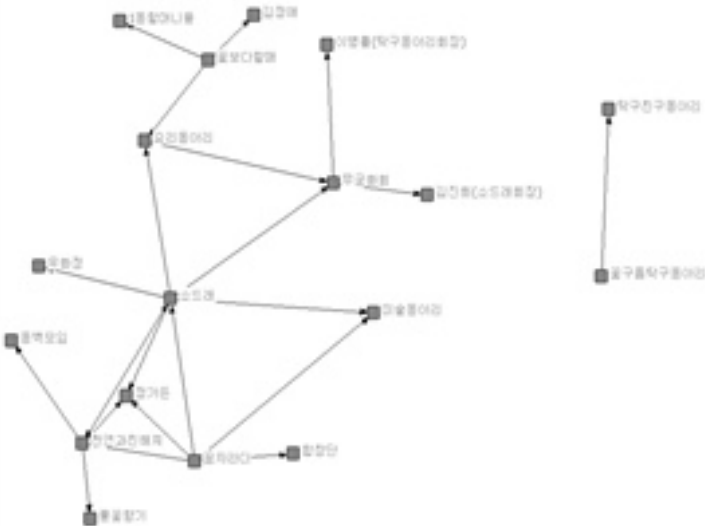
천연과 친해져 관계망 변화



동네 사람들에 참여하기 전에는 정가든, 풀꽃향기, 소드래, 동백 모임만 알았으나 활동을 하면서 무궁화회, 요리동아리, 방화마을 합창단, 탁구 친구동아리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천연과 친해져 활동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분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참여 전보다 12개의 관계망이 늘어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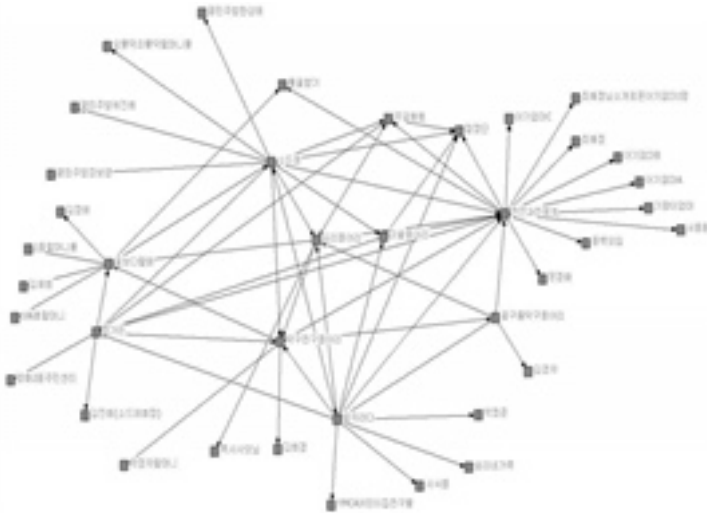
동네 사람들 전체 관계망 변화

유씨넷(Ucinet)을 활용하여 동네 사람들에 참여하기 전에 전체 모임별 관계망을 분석해봤습니다.



유씨넷 활용 - 동네 사람들 참여 전 관계망

동네 사람들에 참여하기 전에는 연결된 모임들이 적거나 아예 관계가 없던 곳도 있었습니다. 활동하는 모임들에 관심이 없거나 전혀 몰랐던 곳도 있었습니다. 하나의 모임이 빠지게 되면 서로 연결되지 않는 곳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 참여 후 전체 모임별 관계망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유씨넷 활용 - 동네 사람들 참여 후 관계망

참여 후에는 하나의 모임이 빠지더라도 서로 연결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관계들이 생기고 넓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새롭게 알게 되거나 오가다 인사 정도는 할 수 있는 모임들이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지 생각해봤습니다. 그 이유로는 선정모임 사업설명회와 상허반기에 진행했던 공유모임에서 만났던 경험들이 있었기에

관심이 생긴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각자 모임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만난 주민들도 눈에 띄게 늘어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동네 사람들 참여 후 총 51개의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졌습니다.

인터뷰 분석

활동을 통한 관계의 변화

동네 사람들 활동을 통해 관계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리더분들과 1:1로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결과 활동을 계속하다 보니 이전과 다르게 관계가 깊어져 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같이 모이다 보니 즐겁고 웃음이 끊이질 않는다고 했습니다. 서로 관심을 가지니 정이 들게 되고 소중한 인연으로 발전되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웃사촌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고 속마음을 나누는 사이가 되어 서로를 좀 더 잘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키워드

관계가 깊어짐, 즐거움과 웃음, 관심을 가지니 정이 들, 소중한 인연, 이웃사촌, 속마음을 나누는 사이, 서로를 잘 알게 됨

활동하면서 갈등이 생길 때도 있지만 함께한 시간만큼 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지내고 계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주민모임이 처음에는 큰 의미가 아니었지만 함께 하는 세월이 길어질수록 관계가 깊어지고 제2의 가족, 이웃사촌이 되어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인연이 되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이에 동네 사람들이 주민들 간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되며 앞으로도 주민분들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관심을 두며 좋은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동네 사람들 리더가 생각하는 주도성

주민들의 주도성을 강화한다는 목표로 올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주민 모임 리더분들과 1:1로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결과 모임 활동을 직접 준비하고 참여하는 것, 회원들을 이끌면서 함께하는 것, 내가 앞장 서서 먼저 하는 것, 자립심이 생기는 것, 서로 믿고 협조하는 것이 주도성이라 생각하셨습니다.

키워드

우리의 활동을 직접 준비하고 참여하기, 회원을 이끌면서 함께 하기, 먼저 하기, 자립심, 서로 믿고 협조하기

주도성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누면서 ‘복지관 선생님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저희끼리 의논해서 직접 날짜도 체크 하고 시간도 체크 하잖아요. 그러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대관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된다는 느낌이 들어요.’, ‘무슨 일을 할 때, 일이 있을 때마다 이걸 우리가 주체가 되는구나 만들어가는 활동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우리가 뭘 하든 다 우리가 준비한다는 거죠. 음식부터 냄비, 뭐 이런 거 필요하면 빌려오고 준비를 다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모임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을 회원들과 기획하고 진행하는 것이 주도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회원들과 의논하고 책도 협의하고 그랬지만 제가 많이 주도적으로 회원들을 이끌었던 것 같아요.’, ‘내가 좀 더 어르신들도 챙기고 자주 찾아가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 상황들이 생기니 내가 판단해야지 누구의 도움은 없다고 생각이 들면서 스스로 커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라

는 이야기를 통해 본 활동이 주민 주도성 강화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동네 사람들에 참여한 모임 중 대부분은 기존에도 복지관과 함께 활동했던 모임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에 당신들이 스스로 모임을 이끌어 간다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특히 ‘모임 내에서 협력하여 일한다.’, ‘소속된 모임의 목적을 인지하고 활동한다.’, ‘주민 활동의 계획, 실행, 평가 모든 과정을 진행한다.’, ‘모임 내 구성원의 참여를 독려한다.’가 내가 모임 내에서 그렇게 하거나 주도성이 있는 모습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동네 사람들 리더가 생각하는 나눔

주민모임 중 나눔 활동을 실천하는 곳을 중심으로 1:1로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결과 나눔이란 마음을 나누는 것, 관심, 서로 주고받는 것, 섬김, 정, 나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 나누고 싶지만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키워드

마음을 나누는 것, 관심, 서로 주고받는 것, 섬김, 정, 나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 쉽지 않은 일

여러 활동을 하면서 나눔에 관한 생각도 전환되었는지 여쭙봤습니다. 예전에는 불쌍한 사람들에게만 나눠 주는 거로 생각했지만 누구나 나눌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전환되었고, 나누다 보면 나에게도 돌아오니 두 배로 행복해지는 것, 나누다 보면 기분이 좋고 뿌듯해진다는 감정의 변화를 이야기해주셨습니다.

키워드

누구나 나눌 수 있는 것, 두 배로 행복해지는 것, 감정변화

나눔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누면서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한 것과 비슷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나눔 활동을 하는 모임 중에 '나눔이라는 것은 불쌍한 사람들에게만 나눠 주거나 돕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누구나 나눌 수 있고 작은 거라도, 마음이라도 누구나 준비가 되어있다면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나눔인 것 같아요. 나눔을 통해서 누구나 행복해지는 게 나눔인 것 같아요.' '전에는 제가 가진 것에서나 여유가 있는 것을 나누는 거로 생각했어요. 지금은 굳이 그런 생각보다는 누구나 다 나눌 수 있는 것이 나눔인 것 같다고 생각해요.'라고 하면서 활동을 하면서 나눔에 대한 의미가 변화되었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다양한 것들을 나누며 더불어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동네 사람들 리더가 생각하는 더불어 사는 삶

더불어 산다는 건 무엇인지 궁금하여 주민모임 리더분들과 1:1로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결과 더불어 산다는 것은 동등한 입장에서 살아가는 것, 혼자서는 살 수 없기에 같이 살아가는 것, 서로에게 관심을 갖는 것, 돕고 나누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키워드

동등한 입장, 같이 살아가기, 관심 갖기, 돕고 나누기

어떨 때 더불어 사는 것 같은지도 여쭙봤습니다. 모임에 참여하면서 관심을 보이거나 가질 때, 서로 도와줄 때, 함께 웃을 때, 나에게 돌아오는 것을 느낄 때 더불어 산다는 의미를 느낀다고 했습니다.

키워드

관심, 서로 도와줄 때, 함께 웃을 때, 나에게 돌아오는 것을 느낄 때

‘굳이 안에서 만났기 때문에 가지 않아도 되는 분들도 일부러 찾아갔다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런 게 정말 더불어 사는 삶 아닐까 생각했어요. 내 일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몇 번 얼굴 본 게 다이지만 그 안에서 서로의 마음이 오고 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마을에 대한 개념이 상실된 시대잖아요. 그런 시대에서 더불어 산다는 것은 옆집 사람이라도 챙겨주고 우리가 복지관에 와서 할머니들, 회원들과 함께 인사하고 그러는 거 아닐까요?’, ‘힘든 일 있으면 도와주기도 하고 그럴 때 더불어 산다고 느껴요.’, ‘저 사고 났을 때 차도 안 가지고 다니는 애가 회사 앞까지 차 가지고 데리러 와줬어요. 그럴 때 더불어 산다는 느낌을 받죠.’, ‘항상 여럿이 모이면 빵빵 터지게 웃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냥 웃죠. 탁구 치면서 함께 산다는 의미를 많이 받아요.’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동네 사람들 활동이 더불어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응원 글

김은희 부장

그다지 표현이 많지는 않으나 당사자를 진심으로 만나려는 권민지 주임님! 기관에서 늘 어려운 일들 도맡아서 척척 해결해나가는 귀한 동료입니다. 동 중심개편이 되었어도 기존에 해오던 사업들을 잘 도울 방법도 함께 있어야 했습니다. 기존의 사업을 아울러서 꾸려보기 위해 궁리했지요. 동아리 활동으로 이웃 간의 관계를 잘 거들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주민모임 공모사업 동네 사람들이 꾸려졌어요. 각자의 행복한 삶을 위해, 마을을 위해, 주민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가지고 동아리 모임에서 지원하셨지요.

이제껏 마을에서 해 오신 활동이나 사업들이 있었기에 함께 모여 활동에 대해 공유하고 이야기 나눌 때 풍성했습니다. 서로의 활동에 관해서도 관심 두게 되고, 다른 모임 회원들과 관계도 맺게 되었지요. 가장 큰 의미는 주민모임에서 주도적으로 직접 사업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활동을 꾸리셨습니다. 스스로 진행하는 것에 재미도 느끼시고, 긍정적인 요소가 많았습니다.

동네 사람들 활동으로 복지관이 활기차고 풍성했어요. 이렇게 활동 잘 이루시도록 거들어드린 권민지 주임님 고맙습니다. 함께 일함이 복이며 늘 든든합니다. 권민지 주임님의 사회사업실천을 늘 응원합니다!

동네 사람들 사업은 복지관이 동 중심 조직개편으로 잘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준 사업입니다. 장애인기능특화사업을 종료하며 수차례 내부논의를 거치고 주민들과 의견 나누며 준비한 사업이 동네 사람들 사업입니다. 많은 예산을 지원해 드릴 수는 없지만, 공모사업 방식으로 동네 사람들 사업을 추진하여 기존 모임과 새로운 주민모임을 돕기로 했습니다. 주민들께서는 새롭게 시작하는 방식이 달갑지만 않으셨을 겁니다. 권민지 주임님은 다른 여러 기관 선행실천을 배우며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전체 사업설명회도 열고 개별적으로도 자세히 설명해드렸습니다. 그렇게 돕는 과정에서 차츰 주민들도 모임을 스스로 운영하는 것에 익숙해지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권민지 주임님 고생이 많았습니다. 11개 모임별 나들이를 돕고 사업 운영을 도왔습니다. 일 년에 두 번은 모든 모임 리더가 모여 서로 사업 소개하고 인사 나누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시간으로 좋은 관계가 확장하고 돈독해졌습니다. 권민지 주임님께서 노력하고 정성을 다한 덕분에 이렇게 잘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20년 권민지 주임님의 사회사업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맺음말

주민모임의 주도적 활동과 관계를 돕기 위해 동네 사람들을 진행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초반에 계획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그동안 잘해온 모임들이 앞으로도 잘 활동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과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기본바탕이 되는 관계와 주체성을 돕는 예방적 복지사업이 필요해서였습니다.

이웃 관계는 언제든지 끊어지거나 부실해질 수 있습니다. 관계를 주선한 후에도 조정 중재할 일이 있기 마련입니다. 때때로 살피서 칭찬 감사로써 응원 격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를 주선했어도 시간이 흐르면 사람이 바뀝니다. 이웃이 바뀌기도 하고 다른 대상자가 들어서기도 합니다. 문제나 욕구가 변하고 상황도 변합니다. 관계 그물에 버리가 필요합니다. 관계가 삼천 코라도 그것을 꿰어 지탱하는 버리가 있어야 합니다. 관계를 살피고 유지 보수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회사업가는 관계의 선을 만들 뿐 아니라, 거미처럼 어부처럼 선들을 엮어서 그물을 만들고 활용하고 유지 보수하는 사람입니다. 「한덕연, 복지요걸」

올해 동네 사람들로 활동하는 모임 곳곳에 참여했습니다. 회원님들이 스스로 모여서 활동하는 것이기에 자주 가진 않았습니니다. 회원님들이 놀러 오라고 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제가 가고 싶을 때 상황을 보면서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참여하면서 주민들 간의 관계가 유지 강화되는 모습, 주도성이 강화되는 모습, 더불어 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의 소모임이 많을수록 사회적 자본이 많다고 합니다. 내년에도 많은 주민모임에서 당신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 많이 제안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두루 다니며 지금까지 잘해온 일들, 하고자 하는 일들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잘 주선하고 거들겠습니다.

동네 사람들

주민이 모임 활동을 직접 공모·제안하는 방식으로

주민모임의 주도적 활동과 관계를 도운 사회사업

지은이 | 권민지

발행일 | 초판 1쇄 인쇄 2020년 2월 17일

펴낸 곳 | 푸른복지 발행인 | 양원석

출판사 신고번호 | 제315-2006-00007호

주소 |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348 117-402

전화 | 010-2270-8613 팩스 | 02-6230-9244

블로그 | blog.naver.com/welfarebook 전자우편 | masil@welfare.pe.kr

ISBN 979-11-6335-027-9 94330